

남가주 동창회 가족 캠핑 행사, 대자연속 친목 도모



【기사: 홍선례 (음대 70) 편집위원, LA】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Labor Day 연휴를 맞이하여 남가주 동창회(회장 강신용, 사대 73) 가족 캠핑 행사가 LA에서 동남쪽으로 80 마일 떨어진 Temecula지역 Elim 유항 온천에서 개최되었다.

170여 명의 동문들과 친지,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첫 날 저녁은 New Shady Rest Park에서 사대 동창회(회장 이상호, 사대 80) 주관으로, 둘째 날 저녁은 미대 동창회(회장 한귀희, 미대 68) 주관으로 바베큐 파티가 있었다. 동문들은 도시의 소음과 공해를 떠나 대자연의 경관을 즐기며 우애를 다졌다.

9월 1일 (토)

강신용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시기에 갖게 되는 동문 가족 캠핑은 이제 서울대 동문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연례 행사가 되었다. 캠핑은 수년간 중가주 Bishop과 북가주 Mammoth 지역에서 치러졌는데 올해는 LA와 가장 가까운 Temecula지역까지 내려온 것이다. Temecula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해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인근 San Diego 지부 동문도 초청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용준(수의대 81) 총무국장의 참가 동문 소개에 이어 다음날 행사 안내와 Activity Group 담당 소개가 있었다.

저녁식사 후, 별 관측 행사를 최흥수(자연대 87)동문이 주도하였다. 주위 조명을 모두 자제시킨 후 천문 망원경으로 토성, 화성, 안드로메다 은하 등을 관측했고 이어서 하늘에서 각종 별자리를 찾았다. 도심에 살면서 천문 망원경을 접해볼 수 없었던 동문들과 자녀들은 처음으로 금성, 화성을 육안으로 보는 등 늦여름의 운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 별 관측 행사를 최흥수(자연대 87)동문이 주도하였다. 주위 조명을 모두 자제시킨 후 천문 망원경으로 토성, 화성, 안드로메다 은하 등을 관측했고 이어서 하늘에서 각종 별자리를 찾았다. 도심에 살면서 천문 망원경을 접해볼 수 없었던 동문들과 자녀들은 처음으로 금성, 화성을 육안으로 보는 등 늦여름의 운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9월 2일 (일)

1. 등산: 아침 8시, 26명의 동문이 Mountain center에 있는 Ramona Trail 에서 산을 올랐다. 김동근(공대 60) 동문의 인도 하에 약 8 miles, 1,600ft를 등산했는데, 청명한 초가을 하늘과 바람을 맞으며 해맑은 산의 정기를 마시며 등산하기에 충분히 좋은 날씨였다.

였다. 특히 San Diego에 거주하는 염두호(공대 57) 부부, 김철희(공대 59) 동문 등이 참가하였다.



등산팀

2. 골프: 아침 10시, Murrieta에 있는 The golf club at Rancho California에서 골프 대회가 열렸다. 총 11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골프를 즐겼는데, 남종우(공대 62) 부부, 강동원(수의대 75), 이사균(수의대 75) 부부, 이재현(수의대 76), 임춘택(상대 68), 김용진(수의대 92), 게스트 등이 참석하였다.



골프팀



산악자전거팀

3. 산악자전거: 양수진(간호대 80) 철벽지 회장의 인도로, 김상찬(문리대 65) 전 총동창회장 부부, 서치원(공대 69) 전 총동창회장, 유혜연(음대 79) 문화위원장, 박찬민(공대 81) 사진반장 등 6명이 참가하였고, 3일 동안 계속 산악자전거를 즐겼다.

첫째 날 Santa Margarita River trail, 4 miles은 중간 중간 꽤 많은 Uphill과 큰 바위들로 쉽지 않은 Trail이었다. Creek이 깊어 두 군데 넘어가는 곳을 피해 Riding했다. 둘째 날 National Interscholastic Cycling Association Trail and Vail Lake trail, 11 miles은 곳곳에 Uphill과 Downhill이 잘 조

>> P 6로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지난 호에 미국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문제를 논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법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사회든지 문명사회가 되고자 하면 사법부가 필요한데 이유는 어떤 분쟁을 분쟁 당사자에게 맡기게 되면 인간의 복수심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문명이 결여된 중세 이전에는 소위 탈리오 법칙 (lex talionis)에 의하여 어떤 자가 다른 사람 손을 잘랐다면 피해받은 자도 가해자의 손을 자르도록 하는 법칙이 준수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칙하에서는 피해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 손을 다쳤으면 다른 사람의 손 대신 눈을 해치려는 경향이 있어 공평한 법의 해결이 힘들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삼자가 문제를 중재 조정하던가, 범법자를 처벌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재판소와 사법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미국도 사법을 중요하게 여겨 정부의 삼부의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법은 입법부가 제정하나 이 법의 적용과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만약 입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제정하던가 또, 행정부가 법을 잘못 적용할 때는 사법부가 이런 위법이나 위법적인 행동을 제재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삼권분립의 존엄성은 사법부가 과시하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의 헌법을 준수하려는 기능이 마비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잃어버리게 되어 모든 비민주국가의 사법부들은 행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못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미국의 헌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법부나 행정부의 소반인 대통령이 월권하였을 때에는 가장 없이 판결을 내려 1973년에 닉슨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선거에 공모, 결탁하였는지 미국의 선거법에 따른 법적 조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는 조사팀도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것 같으며, 현재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범죄를 사면할 수 있다'는 등 Muller 조사팀은 자기가 채용하였고 법무부 장관과 FBI 국장을 자기가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사들을 위법이라고 천명하는 등, 해괴망측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Muller 조사팀은 대통령을 소환하여 interview나 질문을 하려고 하나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Rudy Giuliani)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사들은 대통령은 기소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반대 주장은 전 대통령 클린턴도 특별 검사팀에게 증언하도록 대법원이 판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미국 헌법 3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대법원과 그 밑의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 지방 법

미국 사법부의 중요성

원(District Court)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가장 높은 법원이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대표가 된다. 현재 대법원장은 존 로봇(John Roberts)이며,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였다. 대법원장 이외에 8명의 대법관이 헌법을 고수하는데,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 샌드라(Sandra Day O'Connor)를 임명한 후, 현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소니아 마리아 소토마요르(Sonia Maria Sotomay-

or), 엘레나 케이건 (Elena Kagan) 세 대법관이 여성이다. 현재 앤서니 맥로드 케네디 (Anthony McLeod Kennedy)가 사임한 후, 총 8명의 법관이 있으며 공식에는 브렛 캐버너 (Brett Kavanaugh, 공화당,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여 곧 상원에서 진보와 보수파들의 인준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대법원도 정치 바람을 타게 되며, 많은 대통령 특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닉슨, 레이건 대통령과 현재 러시아와 대선 공모, 결탁 혐의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

립트 대통령은 공식이 나오기 무섭게 자기 정치 철학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파나 자기 지인들을 임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미국은 3단계의 법원이 있기 때문에 삼심(三審)을 할 수 있으며 항소 법원이나 대법원은 아래 법원으로부터 항소 되는 재판권을 기각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건을 기각하며 실질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되는 사건만 다루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9명의 재판관이 배석하고 항소 법원은 3명의 재판관이 주심을 하고, 지방 법원은 1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

미국법이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례, 전례(Previous Cases)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원칙을 'Stare decisis(rule of precedent)'라고 하며 이런 원칙 때문에 많은 결함이 없으면 과거의 판례를 십사리 번복 안 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통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판결을 미제(謎題) 같은 사건에 적용하며, 보통법을 만들어 낸 12세기 영국의 재판관들은 당시의 관습(Custom)에 따라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미국 재판관들은 선례나 관습을 중요시하며, 미국 법률 사무소를 가 보면 도서관에 많은 전례(Previous Cases)의 판결문을 기록한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대륙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판결문보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정법(Statutory law)에 의존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또한 미국 재판은 배심원(Jury System)들이 유죄, 무죄를 결정하며 한국에서는 재판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양 법원 제도가 장단점이 있으나 미국 법원 제도는 12명의 보통 사람의 배심원의 지혜가 판사 한 사람의 판단보다 낫다는 신념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법 제도는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보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Guilty Verdict)이 더 힘들게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2명의 배심원 중에서 한 명의 유죄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재판장은 유죄 판결을 고수할 수 없다. 이번 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위원장 폴 마나포트(Paul Manafort)가 18개의 법 조항을 어진 것으로 소추되었는데, 10개의 범죄는 11명의 배심원이 유죄로 결정하였으나 단 한 명의 배심원의 반대로 8개의 조항에서만 유죄가 결정되었다. 너무나도 많은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반대로 10개의 기소는 취소되었다. 미국 재판장은 유죄, 무죄는 배심원의 결정에 따르나 형량은 자기가 결정한다. 물론 재판관이 배심원들에게 법 해석과 많은 지시를 함으로써 판결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사건의 제삼자적인 공정한 입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미국 연방 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자는 상원의 과반수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판사들은 한 번 임명이 되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탄핵소추(impeachment)를 받기 전에는 영구 종신직으로 맞실 년을 법원에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여론 가운데 법관의 임기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사 사건(Civil Case) 경우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며, 형사 사건도 오랜 시일이 걸려야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의견에 의하면 미국은 변호사가



정상욱 (수학 75)

한국에 국제 학술교류센터 짓자

최근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긴장 관계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의 추격으로부터 단 한 번도 패권국의 지위를 놓지 않았던 미국도 이번에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많은 인구수와 풍부한 자원, 철저한 중앙 통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전은 미국이 과학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그 부가까지 산업의 우위로 유리함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과학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2008년부터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천인 계획(千人計劃)을 필두로 하는 이공계 지원 계획이다. 이미 중국에서도 규모만 커지는 경제의 한계를 깨닫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 규모를 연평균 10% 이상씩 늘리면서 유럽을 제치고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중국 이공계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인재다. 자국 출신 해외 인재뿐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의 젊은 학자들 또한 대거 불러 모으고 있다. 과거 미국이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아 자국의 첨단 기술 자양분으로 삼으며 일으킨 현상을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같은 현상이 중국을 향해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줄어든 과학 기술 자금과 까다워진 이민 절차 등과 맞물려 미국 내에서도 두뇌유출의 우려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에는 두뇌유출에 관한 기사를 통해 예일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중국 칭화대에 세 연구소를 꾸린 스페인 출신의 유전학자가 소개됐는데, 필자도 최근에 만났던 상해뉴욕대학의 문필경 박사과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상해고압과학

앞으로는 이러한 비교를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한다는 것이 새로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중국은 한국의 옆에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긴 비행시간과 시차 및 문화적인 차이점까지 극복해야 하는 서양국가로의 인재유출에서도 한국은 고전해 왔는데 앞으로 쉽게 오갈 수 있고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인재들이나 항공기 조종사 등의 이직 현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도 인접 국가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으로의 과학계 두뇌유출이 앞으로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변화를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두뇌유출의 양상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

하면 과학계 허브의 역할이 새롭게 나타나는데서 한다는 것이 새로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중국은 한국의 옆에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긴 비행시간과 시차 및 문화적인 차이점까지 극복해야 하는 서양국가로의 인재유출에서도 한국은 고전해 왔는데 앞으로 쉽게 오갈 수 있고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인재들이나 항공기 조종사 등의 이직 현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도 인접 국가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으로의 과학계 두뇌유출이 앞으로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오랜 과학의 역사를 가진 유럽이나 미국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학술 교류센터들을 갖추어 학자들을 모으고 있다. 독일 알프스의 성을 개조한 '성 링베르크라든가, 이탈리아의 자국 물리학자 이름을 딴 '에토레 마요라나 센터',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아스펜 센터' 등은 이미 학자들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교류센터의 중요성은 단순한 방문자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는 학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뿌리지는 과학 발전의 자양분에 있다.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의 과학계는 그 규모의 한계로 인해 국제적인 학술대회 대부분을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참가해 왔고,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 학계의 적절한 네트워크와 주류로의 진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중일 만으로도 규모를 갖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학자들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허브로서 나름의 역사를 쌓아 나아가려면 수려한 경관만이 아니라 장소 자체의 의미와 이야기를 가진 곳이라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할 것인데 창의적인 시선으로 한반도를 재발견해야 하는 시점이다.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이 있는 제주도나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로 각인된 평창이나 심지어는 포 발사장이 해안 관광지로 변하고 있는 북한의 원산갈마 해안 같은 곳에 국제 학술교류센터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경제와 정치의 중계자 역할을 하듯이 한국이 학술 교류센터를 통하여 가장 적은 투자로 동방의 과학 허브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

뉴저지 럿거스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지로 나가서 수학했던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을 지칭했다. 2013년 미국과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박사학위 취득자 중 60%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조사됐다고 한다. 스위스 경영개발 연구원이 발표한 두뇌유출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98점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다.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미국의 연구환경과 경제 규모에서 오는 이점이 타지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인데,

는 적절한 대처에 달려있다. 우리가 시대아오지 않는 현상을 지칭했다. 2013년 미국과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박사학위 취득자 중 60%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조사됐다고 한다. 스위스 경영개발 연구원이 발표한 두뇌유출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98점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다.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미국의 연구환경과 경제 규모에서 오는 이점이 타지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인데,

너무 많고, 하찮은 일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기 사재로 고용하거나 돈이 없으면 법원이 정해주는 관선 변호인 변호를 받게 되며, 검사들은 행정부의 법무부에 속하는 법률가들로 그들의 상관은 법무부 장관 Attorney General로 공무원들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이외에도 각 주들이 그들만의 법원제도가 있으며, 군인 재판소, 다른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 특별 재판소가 있다는 것을 첨부하고 싶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이므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은 부자나 빈자를 가리지 않고 보호해야 하며 법은 약자의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지배하므로 우리도 미국에 이민 온 소수 민족이지만 법을 잘 이해해야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였을 경우,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에게 증언할 필요가 없으며, 유도 심문에 빠지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미국 원주민은 인디언이고 다른 모든 시민은 이민자들의 후예로 모두 땀땀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Every American is equal before the law regardless of color, race, gender and ethnic origin.

P.S. 막 원고를 마지는데, T.V에서 고 존 메케인 상원의원의 영결식이 방영되고 있다. 미국의 이상과 우리가 존경하는 원리(principle)를 존중하던 한 애국자의 서거를 애도한다. 그는 이민자를 환영하였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다. ♦

전 세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제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 P 1으로부터

화된 Trail은 league 시합을 위한 좋은 Trail이었다. 8 마일 정도 탔으나, 아쉬운 마음에 Vail Lake까지 또 갔다 왔다. 셋째 날은 Ramona trail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적당한 곳에서 타기로 하고 Holy Fire 지역을 피해, 91번에서 내려 Green River Golf장에서 Chino Hills 무릉도원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Scully Ridge Trail로 올라가 Lower Aliso Trail로 내려 왔는데, Scully는 처음 1마일 정도 급경사였고 그 다음 3마일도 계속 Ridge를 따라 Uphill이 계속되어 힘이 들었다. lower Aliso는 완만한 경사였다. (9 miles)



강산용 회장



임원진 소개

4. 관광: 아침 9시, 최용준(총무국장, 수의대 81) 동문의 인도로 47명의 관광팀은 단체 버스로 1시간 후 Palomar 마운틴에 도착하였다. 손영아(음대 85) 문화위원이 투어 리더를 맡아 관광스케줄을 정하고 설명을 했다. 해발 5,600여 피트의 높은 산에 위치한 Palomar 천문대 피크닉 장소에서 San Diego에서 온 최홍수 동문이 2개의 망원경을 준비, 천문대 망원경에 대해 강의했다. Palomar 천문대는 San Diego County의 Palomar 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Caltech이 운영하는 천문학 연구의 중심지이고 200 인치 헤일 망원경 등 세 가지 연구용 망원경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Caltech은 물론, 제트 추진 연구소 Jet Propulsion Laboratory, JPL과 Cornell 대학교를 포함한 협력 기관에 연구를 허용한다. 이 산은 한때 스미스 산이라고 불렸으나 1901년, 스페인어로 비둘기의 땅이란 뜻인 본래의 이름 Palomar로 다시 바뀌었다고 한다. 헤일 망원경이 있는 천문대와 작은 Museum으로 나뉘어 있는 천문대를 관람하고, 천문대 직원의 배려로 태양 관측도 했다. 자유 관람을 마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다.

Temecula Old Town에 도착

Temecula는 Championship 골프 코스로 유

명하며, Winery들이 3,000 Acre에 그림 같이 펼쳐져 있다. Temecula 중심부에 위치한 Old Town은 Temecula Valley 박물관과 유서 깊은 건물, 정기적인 자동차 페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쇼나 공연 등도 볼거리다. 다음 Monte De Oro Winery로 이동하여 와인 시음도 하고 야외 공연도 구경하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9월 3일 (월)

아침에 해산하였는데, 동문들은 개인 별로 유헤온전에 몸을 담그거나 Winery 등 관광을 더 즐기기도 하고, 일부 동문들은 폐창가에서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삼삼오오 즐거운 식사시간

최용준 총무국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동창회 임원진들이 몇 차례나 준비모임을 갖고 현지를 답사하기도 했다. 준비 과정, 실제 행사 진행 등이 순조로워서 이만저대 커뮤니티인 한인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모범행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호 행사위원장(인문대 81)은 “단과대학별 동창회나 총동창회의 정기 총회와 달리, 3일을 함께 있다 보니 동문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진다.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2박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동문들은 푸르른 대자연 속에서 산의 맑은 정기를 마시며, 유헤 온천욕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Elim 유헤 온천을 떠났다.



디저트를 서브하는 임원들

끝으로 정보와 사진을 제공해 준 오홍조(치대56) 전 총동창회장님, 김동근, 양수진, 박찬민(공대 81), 김양희(음대 77) 행사위원, 김옥권(치대 76) 문화위원, 유혜연, 손영아 동문과, 중앙일보에 게재한 글을 참고하게 해 준 장병희(인문대 86)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남가주 동문 합창단 미주 유일 단체로 2018 한민족 합창 축제에 출연



【기사: 김옥경, LA】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단장 김옥경)이 국립합창단 초청으로 2018 한민족 합창축제 무대에 섰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후 올해 4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한국 국립합창단 기획 공연으로 축제 기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합창단을 초청하여 국립합창단과 함께 한민족의 민족적 정서와 역사를 담은 작품의 연주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한민족 화합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해마다 열리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우리 합창단에게 경기도 연천군에 새로 개설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지난 8월 14~16일 미국, 중국 연변과 북경, 독일에서 초청된 한민족합창단들과 합동 수식을 제공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전체 예비 연습을 하였다.

“27명의 단원과 장진영 지휘자, 김언정 반주자 등 총 29명”을 거느린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국립합창단과 여러나라에서 초청된 한민족 합창단들과 함께 한민족 합창제에 앞선 준비 및 공연에 만전을 기했다.

첫번 한민족합창제 공연은 8월 14일 연천군 민들 앞에서 했고 8월 15일과 16일 서울의 The K-Hotel에 묵게 하면서 예술의 전당 콘서

민병군 동문 환영회



현영 모임

【기사: 홍선례, LA】 지난 7월 29일 LA의 Koreatown에 위치한 용수산 한식당에서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민병군(공대 65) 박사 부부의 환영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민병군, 전해경 박사(Mrs. 민, 문리 67), 한효동 (공대 회장, 58), 노명호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대 61), 김병연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대 68), 위종민(공대 총무, 64) 동문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12월 14일로 예정된 남가주 공대 동창회 50주년 기념 행사와 50년사 책 발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



예술의 전당 앞에서 기념촬영

트홀에서 아틀란 걸쳐 코리아콰 오케스트라가 합류하여 공연했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합창단은 별도로 선 무대에서 “추심(가을이 오는 소리), “우리는”과 “Shenandoah”를 불렀고, 연합합창단들과 선 무대에서 “약속”, “아리랑”, “한국환상곡” 등 의미 깊은 곡들을 함께 노래했다.

우리 합창단은 미주의 유일한 단체로 한민족합창제에 초청되어 연주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기회를 감사하며, 열정적인 지휘자, 반주자의 지도하에 맹렬한 연습과 동문들의 성원으로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보배스러운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민병군 동문 부부

었고, 앞으로 가족의 3개 총동창회 (남가주, 북가주, San Diego)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남가주 총동창회의 매년 행사의 하나인 Labor Day Weekend Outing(평균 250~300명 동문과 가족 참여)을 세 동창회가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 동창회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5일 California 45 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Dave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법학 대학원 교수)의 부모인 민병군 이사장 부부는 전날 280여명의 남가주 동문 가족과 함께 Hollywood Bowl 행사(Musical Annie)에도 참가하였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산우회 창립 및 첫 산행



【기사: 정태영 (문리 71), 뉴잉글랜드】

지난 6월 박영철 회장의 회기를 마치면서 결성된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윤은상, 상대 66) 산하 등산 동우회원 산우회는 지난 7월 4일 첫 산행을 가졌다. 산우회장은 김정선(문리 66) 동문이 맡았다. 미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오르는 산은 뉴 햄프셔에 있는 Mt. Major.

일행은 뉴햄프셔 접경지역인 메사츄세츠 북쪽 앤도버 Park & Ride에서 만나 카풀을 한 다음 1시간 30분 정도 운전해 화이트 마운틴 산 자락 중 하나인 Mt. Major 입구에 도착했다. 산 높이가 5,700 피트인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고도는 대략 1,800 피트 정도였다.

기온은 며칠전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어 땀

마운틴 메이저 정상에서.



라코니아 호수에서.

흘리기에 딱 알맞았다. 산행을 시작하자 바로 땀이 배었다. 산행 도중 김정선 회장은 각자 아호를 하나 만들어 부르자고 제안하여 즉석에서 몇 사람의 아호가 정해졌다.

마운틴 메이저는 예상보다 정상 부근에 가

뉴잉글랜드 동창회 임원회의 개최



2018년도 첫 임원회의 중 다같이 찍은 단체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영인 동문, 노동환 동문, 김재성 동문, 안혜형 동문, 이재봉 동문, 이강원 동문, 김정선 동문, 윤은상 회장, 박순혜 (윤은상 회장 배우자), 신은경(노동환 동문 배우자)

【기사: 노동환 (공대 84),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지부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지난 7월 21일 (토) 에 Lawrence, MA 소재 Rega's Grill에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여 첫 임원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첫 모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봉 동문께서 준비한 점심과 다과를 나누며 다음 회기 행사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2019 회기 회장을 맡아 수고하실 윤은상 회장님의 개회로 임원 분들의 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회기 중 진행할 행사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기에 봉사하실 임원 분들은 회장 윤은상 (66 상대), 차기회장 이강원 (66 공대), 총무 노동환 (84 공대), 재무 김재성 (87 공대), 섭외 김우경 (72 음대), 음악 안혜형 (87 음대), 회원 이재봉 (72 공대), 감사 김선혁 (59 약대), 장학위원

회 위원장 이영인 (74 사대), 산우회 회장 김정선 (66 문리대), 부회장 정선주 (68 간호) 등이다.

식사 후에는 함께하는 동문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문회에 대한 신임 윤은상 회장의 인사말과 회기 중 진행할 행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중요 결정사항으로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 가을 야유회 및 이사회: Sept 8 (Sat), 2018, Auburndale Park (Newton)
- 연례 총회: Dec. 8 (Sat), 2018, 장소는 다음 임원 회의에서 확정 예정
- 이사진 보강에 대한 논의: 건설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취합하기로 함
- 이사 임원회 개최: April or May, 2019,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장학생 선발, 위원장 (이영인 동문) 주최로 개선 방향 및 선발 과정을 의논



박찬욱 (사회 72)

박찬욱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맡아

이사회 “올해안에 총장 재선출”

【기사: 박수진】 모교가 총장 후보 자진 사퇴와 성낙인 전 총장의 퇴임으로 인한 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내렸다. 모교는 성낙인 총장 퇴임 다음날인 지난 7월 20일 박찬욱 교육부총장(사진)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가동했다. 이어 지난 7월 27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박찬욱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 학원장회로 구성된 3자협의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성낙인 전 총장은 지난 7월 18일 인사위원회에서 7월 22일자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박 부총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부총장은 새로운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총장 후보 사퇴에 따른 사태 수습에 나선다.

가워지자 가파라졌다. 바위 타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여 정상에 도달 김선혁(약대 59) 동문과 김문소(수의 61) 동문이 노익장을 과시해 거뜬히 정상까지 올라 튼튼한 체력을 과시했다.

정상에 오르니 라코니아 호수의 멋진 풍광이 한 눈에 들어왔다. 산 밑으로 뉴 햄프셔의 수풀로 우거진 별관이 시원스레 전개되었다. 정상에는 의외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올라와 제법 붐볐다.

김정선 회장은 산우회 플랑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 일행은 이를 앞에 놓고 정상 기념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어 정상 언저리에 나무 그늘과 앉기에 알맞은 바위를 찾아 자리

를 잡고 각자 준비해 온 점심을 먹으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박영철 전 회장은 이전 산행에서처럼 김과 닷트류의 스낵을 나누어 권하기도. 두런 두런 이야기와 식사를 마치고 하산. 하산 후 화이트 마운틴 관광 지구가기도 하고, 인근에 아름다운 라코니아 호수가 있어 그곳에 가서 호수 구경도 하고 이곳 명물인 아이스크림도 맛보며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는 김선혁(약대 59)/김원욱 부부, 김문소(수의 61)/김계숙(간호 63) 동문 부부, 박영철(농대 64)/정선주(간호 68) 동문 부부, 김정선(문리 66), 윤용훈(공대 67), 정태영(문리 71)/이영인(사대 74) 동문 부부, 최진민(공대 71), 홍도화(사대) 비지팅 방문 동문.



주한수 (수의 62)

주한수 (수의대 62) 동문

제28회 일가상 농업부문 수상

【출처: christiantoday.com】 한국 일가재단(이사장 손봉호)이 7월 31일 제28회 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농업부문에 미네소타 대학교 명예교수인 주한수 동문이 차지했다.

일가상 농업부문 수상자인 주한수 명예교수는 수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에 선진 수의 교육과 최신 기술을 전수하여 양돈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퇴임 후 엔 농장에 대한 직접적인 컨설팅과 정책 자

문 및 수의사 교육을 통한 후진 양성에 힘쓰며 한국 양돈 산업의 선진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일가상은 가나안농균학교 창설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故 일가(一家) 김용기 선생(1909~1988)의 복민주의(福民主義) 사상을 계승하고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국제상으로 1991년 제정되었으며, 청년일가상은 일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젊은 실천가를 발굴하고자 2009년에 제정되었다.

- 산우회 보고: 2018 회기 중 업무 계획 발표 (김정선 동문)
- 주소록 업데이트: 기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하여 발간하기로 함
- 동문들의 원활한 동문회 활동 안내를 위해 전자메일 및 메일을 함께 사용하기로 함
특히, 산우회의 김정선 동문이 참석하여 산우회의 비전 및 2018 회기내 행사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며, 동문회 활동에 새로운 활

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다.

행사 후 윤은상 회장님 (\$1,000)과 이재봉 동문 (\$200)의 기부금 전달 및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문회에서는 모든 동문들의 참석 및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과 그 밖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 지난 행사 사진들은 <http://sites.google.com/site/snuane>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소록 업데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욕지역 동창회 신응남 차기 회장 후원의 밤



【기사: 허유선 (가정 83) 편집위원, 뉴욕】

지난 8월 25일, 내년 7월 임기를 시작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15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응남 (농대 70) 동문 후원 초청 만찬이 45명의 뉴욕의 원로 회장단과 동문들의 참석으로 대나무가 병풍을 이루고 있는 신응남 회장 자택 뒷마당에서 부인인 이희만 (간호 70) 동문이 준비한 정성 어린 가든파티 디너로 열렸다.

이준행 (공대 48), 김중률 (사대 51), 최수용 (상대 55), 오인석 (법대 58) 동문이 공동 후원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축사를 통하여 신 차기 회장을 통한 미주동창회의 뉴욕 유치를 크게 환영하였다. 특별히 최한용 (농대 58) 동문의 와인과 샴페인의 후원은 많은 동문들의 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손대홍 (미대 79) 뉴욕지부 회장의 후원을 위한 축사와 골든 클럽 회장인 손경택 (농대 57) 회장의 격려사, 이대영 (문리 64) 뉴욕지부 직전 회장의 건배사가 있었고, 많은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신응남 차기 회장은 답례사를 통하여, 뉴욕 지부의 화합과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참석하신 원로 동문 선배님들의 깊은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의 원로시인 객상희 (문리 53) 동문의 시 낭송이 있었고, 추재옥 (의대 57) 장로 동문의 식사기도 후, 트럼펫과 색소폰으로 연주되는 추억의 팝송을 들으며 만찬을 즐겼다.

오랜 시간 뉴욕지부의 원동력이 되어온 골든 클럽의 원로 동문들은, 내년부터 시작될 2년간의 신응남 회장을 적극 후원하여 뉴욕 지부의 동문을 비롯한 미 전역의 많은 동문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뉴욕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살려서 부합된 여러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활기찬 덕담과 격려로 모임을 더욱 의미 있게 하였다.

신응남 차기 회장은 2019년 6월 21일부터 3일간 포트리 더블주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 28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 공동 준비와 6월 22일 카네기홀 음악 공연 준비 등 앞으로 2년간 뉴욕에서 진행될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워싱턴 DC 동창회 2000년대 학번 <사료수> 모임



【기사: 한정민 (농대 87) 편집위원, 워싱턴 DC】

워싱턴 지부에서는 '더 많은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동창회의 평균연령을 낮추자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34대 (회장 안선미)에는 임원진 대부분이 80년대 학번이었고, 이번 35대 (회장 정평희) 임원단에는 2000년대 학번 모임인 <사료수> 회장 류영준 (전기공학 02) 동문을 Liaison으로 세웠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80~90년대 학번 모임 <아크로폴리스>와 함께 점점 젊어지는 워싱턴 지역 동창회 모습이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지난 8월 14일 (화) 저녁 7시에 <사료수> 모임이 매릴랜드 College Park 근처에 위치한 <가람>에서 있었다. 직장교과 학교를 마치고 달려온 12명의 후배들 중 미혼자는 3명이고, 대부분 NIH 포닥이나 UMD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다. <사료수>의 뜻은 '관악캠퍼스 교문(서울국립대의 첫 모임인 '스그림)'이 '사'로 보여서 학교 앞 가로수길을 일컫는 함성이라고 한다. 역시 신세대다운 특색 튀는 이름에서 생기가 느껴진다.

지금까지 총 5번의 모임을 가졌고 (버지니아 2번, 매릴랜드 2번, DC 1번), 앞으로도 계속 세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류 동문은 '거리도 멀어서 참여자가 저조할까 봐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매번 예상보다 참여자가 많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처음 미국 유학을 와서 동문이란 울타리가 그리울 때가 많았다. 낯선 미국 땅에 처음 오면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데, 새로 정착하는 동문들뿐 아니라 동

문이란 울타리를 그리워하는 젊은 동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모임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선배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으니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진로와 직장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네트워킹이다. 각 분야에서 자리 잡은 선배님들이 젊은 세대 후배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돼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을 전했다. 그날 모임에서 박계명 (물리 02) 동문은 'NIH의 학술대회에서 참석했을 때 멀리서 임종식 (의대 51) 선배님을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말을 나눌 수 없을 만큼 높은 군번이어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 2시간 넘게 과학과 의학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였다. <사료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모임을 더 키워서 취미 활동을 같이하는 소모임이라던가 싱글 남녀 매칭 이벤트 등의 다양한 이벤트들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평희 회장과 매릴랜드 지역에 사는 오인환 (문리 63), 최규영 (공대 72, UMD 교수) 선배 등 6명의 선배 동문들이 함께 참석하여, 후배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줄 뿐 아니라 젊은 동문들 사이 사이에 앉아 전공 분야, 미국 생활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의 역할을 감당해주었다. 한국에서 온 지 8일 된 2011학번 백승하 (물리) 후배부터 57년에 도미한 임종식 (의대 51) 대선배까지 '서울대란 거대한 지붕 아래 3세대의 선배들이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재훈 회장은 본 강연 소개에서 "2014년에 추산한 CIA 세계 인구조사서에 의하면 전세계 유대인 수는 14.5 million, 미국에 있는 유대인 수는 5.7 million 으로 나왔다. 이렇게 유대인이 미국에 많은 이유는 이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많이 이민을 왔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기에 많이 왔는데, 이민초기에는 미국에서도 차별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은 이를 극복하고 지금은 금융, 언론, 연예계, 학계, 정치계 등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음은 주지사의 사실이다. 특히 유대인의 창의성에 대한 많은 연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천년동안 펼쳐진 반유대인 정서는 이들에 대한 미움, 멸시, 박해, 감금, 추방, 학살로 이어졌었고, 1789 불란서 혁명 덕택으

로 1791년엔 유대인 동등권 부여를 받아 이들도 차별없는 사회에서 살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894년에 일어난 Dreyfus 사건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가 없다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다. 여여결결에 1948년에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착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고 유대인은 그 해결책을 높은 울타리에서 찾았다. 어떻게보면 전 보다 더 큰 문제는 주지사의 사실이다. 특히 유대인의 창의성에 대한 많은 연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기에 그들을 이

북가주 동창회 하계 आयु회



【기사: 박준경 (법대 75), 회장】

북가주 동창회 하계 आयु회가 8월 18일 (토)에 Cupertino에 위치한 Stevens Creek County Park에서 많은 동문 및 가족(총 84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어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래만에 만난 동문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북가주에 번지는 산불사태로 인하여 आयु회 10일전에 No Charcoal Fire 금지령이 발효되어 예년과 같은 BBQ를 하지 못하여, 참석하신 많은 동문들이 아쉬워하였으나, 음식을 Donate하신 동문들이 손수 조리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맛있게 즐겼다.

점심식사후, 박찬호 (자연대 81) 동창회 총무의 사회로 동창회 임원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고, 참석하신 모든 동문분들의 각자 개인 소개가 이어졌으며, 간단한 여흥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여 동문분들이 음식과 음료를 donate하였고, आयु회를 마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참석한 동문분들이 Zip-lock에 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명절이나 잔칫집 분위기와 같은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매뉴얼과 경영 시스템을 통해 1960년대부터 이미 양질의 제품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강관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본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자 1974년에 미국에 진출해 44년 넘게 북미 시장 마케팅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다양한 종류의 강관 제품을 미 전역에 활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의 경우도 역시 이곳 California Rialto에서 생산하고, 시멘트라이닝 코팅 공장을 설립하여 미국 상하수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원칙 준수와 겸허, 품 높은 회사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회사의 기본 이념들을 지켜나 가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간 밀월관계를 지속 발전하는 데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이병준 회장의 포부입니다.



SeAH를 해외에서 더욱 발전시킨 직원분들

그리고 수입, 유통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와 need에 최적화된 solution 제공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Texas에 위치한 연 2십만 톤 생산 규모의 강관 공장을 인수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약 2천만 배럴에 달하는 미국의 하루 석유 수요량의 절반은 당시 Easy oil인 중동산 crude oil 수입으로, 나머지 절반은 미국 내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기술개발을 통해 Tight oil (Shale gas로 함)이라는 새로운 석유 자원을 확보, 석유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 석유수입량은 7백만 배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미국의 석유개발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상 운송 시 채산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파이프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org
www.snuua.org

워싱턴 주 동창회 9월 SNU 포럼 개최



【기사: 김재훈 (공대 72) 회장, 시애틀】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이 주최하는 7월 'SNU 포럼'이 지난 14일 벨뷰 뉴포트웨이 도서관에서 열렸다. 초청 강사인 워싱턴대학(UW) 기계공학과 정재현 교수는 이날 '마이크로 나노 기술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와있는지를 실감케 해줬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휴지 개발로 큰 관심을 끌었던 정 교수는 이날 "바이오 마이크로 나노 테크닉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센서 등이 10~20년 안에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 삶과 생활방식이 확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현 교수

1990년대 개발되기 시작한 나노(10억분의 1)기술은 최근 들어 에너지, 의료기기 및 스마트 장비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마이크로 나노 기술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침투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대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9월 'SNU 포럼'은 8일, Newcastle Library에서 의사인 Dr. 이희백 동문이 '유대인의 역사'에 대하여 강연을 한다. 독서광으로 소문이 나서 걸터다니는 백과사전 (Walking Dictionary)으로 잘 알려진 Dr. 이희백 동문은 유대인의 역사와 그에 연관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



SeAH 이병준 (상대 55)
미주동창회 3대 회장님
회사를 찾아서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LA】

Irvine에 우뚝 솟은 검은 유리의 멋진 빌딩 SeAH, 이병준(상대55) 미주동창회 3대 회장님의 회사를 방문했다. 맑은 공기와 아자수 나무가 있는 주위의 Highlight 빌딩들이 저절로 "와~"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많은 회사 속에 뒤지지 않게 자랑스럽게 SeAH라는 마크가 빌딩 맨 위에 붙어 있음을 볼 때 이병준 회장님의 그 생애와 노고를 한눈에 느끼게 했다.



회장님 실을 노크하고 들어갔을 때 두 내외 분께서 사진 정리를 하고 계셨다. 예전 사모님은 현대무용, 고전무용의 대가이셨다. 한복을 예쁘게 입은 모습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회사에서의 참 여유로운 포즈의 사진이 바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듯했다. 지난 서울대 미주동창회 보스턴 평의원 회의 때 이병준 회장님께 본국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의 공로패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 공로패는 한쪽에 회장님의 얼굴이 Scratch되어 참 특이했다. 만췌해하시는 표정이 근엄하시면서도 마음은 아이들이 상을 받으면 좋아하듯이 흐뭇해 하셨다.

"세아의 수도용 강관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 건강한 삶에 일조한 것과 주요 도시간철 현장에 당사 제품이 필수 자재로 공급되어 한국의 도시화 계획에 이바지한 것을 크게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아제강 초청기를 소회했는데, 당시 한국에 필요했던 생산품질 매뉴얼과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한 것도 바로 이 회장의 원력을 지키는 신조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끊임없이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 동문 모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회사의 내력 및 발전과정, 앞으로 SeAH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SeAH가 무슨 뜻이냐고 여쭈어보았다.

SeAH가 하는 일은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나

해하기위해 유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아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2018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9월 – Dr. 이희백: 유대인의 역사에 대하여
▶ 10월 – Jennifer Sohn 변호사 (Attorney at



Law): 유산 상속에 관한 법적인 문제
▶ 11월 – 최영욱 박사 (시애틀를 통한 한국학교): 한문학으로의 여행 –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 11월 (중강 파티 장소) – 임현민 총무대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이병준 회장이 설립한 Seah Steel America는 본사 세아제강의 수도용 강관, 유정용 강관, 기계용 강관 등을 수입, 유통하는 미국의 판매법인입니다. 세아 고유의 엄격한 품질

SeAH를 해외에서 더욱 발전시킨 직원분들

그리고 수입, 유통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와 need에 최적화된 solution 제공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Texas에 위치한 연 2십만 톤 생산 규모의 강관 공장을 인수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약 2천만 배럴에 달하는 미국의 하루 석유 수요량의 절반은 당시 Easy oil인 중동산 crude oil 수입으로, 나머지 절반은 미국 내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기술개발을 통해 Tight oil (Shale gas로 함)이라는 새로운 석유 자원을 확보, 석유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 석유수입량은 7백만 배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미국의 석유개발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상 운송 시 채산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파이프

Law): 유산 상속에 관한 법적인 문제
▶ 11월 – 최영욱 박사 (시애틀를 통한 한국학교): 한문학으로의 여행 –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 11월 (중강 파티 장소) – 임현민 총무대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오순문 (사대 68)

인생(人生)은 윗놀이인가?

금년 봄 뉴욕에서 한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허드슨 강가의 DiaBeacon 현대 미술관 (사진 참조) 을 찾았다. 평소에 현대 미술이라면 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해왔던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옛날에 공장으로 쓰이던 곳을 미술관으로 개조했다던데 넓은 공간에 빛을 주제로한 설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정육점을 연상시키는 붉은 형광등, 하얀 벽에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흰색 형광등, 과기영화에서나 나오는 푸른 형광등들로 가득차 있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다 차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는 나는 내 나름대로 작품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품마다 “빛과 어둠, 그리고 그 중간지대”, “빛 속의 빛” “어둠 속의 어둠, 블랙홀(Black hole)” 등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재미있게 관람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추천했었는지 어렴풋

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는지 모른다.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피라미드(Pyramid)라던가 페르시아(Persia) 왕자나 허황후(許皇后) 얘기만 봐도, 국경도 여권도 없던 천(千)여년 전(前) 시대(時代)에 이미 동서양간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

사람이 산다는건 비슷한 패턴(Pattern)을 만들어 가면서 사이클(Cycle)을 반복해 가는 과정인 거 같다.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친지, 건강, 돈, 직장 등과 음양오행(陰陽五行), 흥망성쇠(興亡盛衰), 길흉화복(吉凶禍福) 등이 서로 변수(變數)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반복된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바둑에 비유하는데, 흑(黑)돌과 백(白)돌이 가로세로 19줄에서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無限大)로 같은 바둑을 두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바둑에는 정석(定石)이라는 것



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두세 개의 홀(hall) 바닥을 온통 붉은 형광등으로 채운 방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광등들은 6개씩을 한단위로 해서 긴 뿔뿔이 모양과 반토막 짜리로 되어 있었다. 태극기에 나오는 8괘(卦)는 3개의 작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6개의 형광등들을 긴 토막과 짧은 두토막 짜리로 배열해 모두 64괘(卦)를 만들어 방바닥에 진열해 놓았다.

나는 문득 서양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궁금해졌다. 숫자 2, 4, 8, 16, 32, 64, 128... 등으로 이어지는 2진법을 떠올렸을까? 아니면 64비트(bit)를 단위로 한 컴퓨터 칩(chip)을 생각했을까? 세상의 이치(理致)를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로 밝혀보려했던 천년(千年) 전(前)의 주역(周易)과 64비트(bit) 칩(chip)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정보(知識情報)를 담아내려는 현대 과학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서양과 동양은 보통 생

이 있어서 수십개의 기본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주식에서도 주가(株價)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금리, 경기(景氣)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패턴(Pattern)으로 상승하강(上昇下降) 곡선을 반복한다.

사람들은 매일 매달 매년 새로운 선택(選擇)과 결정(決定)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보면 매일매일 윗놀이를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른다. 만약 누가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 대어섯 가지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는 평생 고통속에 살 것이고, 그 반대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혹자(或者)는 다른 표현으로 “인생은 내기 사다리타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흑돌과 백돌이 바둑판 위에서 만들어 내는 무한대의 경우(境遇) 수(數), 그리고 작은 면적의 얼굴에서 눈 코 입 귀만 조금 변했을 뿐인데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걸 생각해 보면 4개의 윗이 만들어 내는 16의 가짓수는 그런대로 삶의 패턴(Pattern)들을 만들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패턴을 반



이태상 (문리 55)

그대 앞에 만 서면

"그대 — 앞에만 서면 — 나는 — 왜 작아지는가"

트로트 가수 김수희가 불러 히트한 노래다. 이 가사를 노벨상을 비롯한 모든 상에 적용해보자.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 미대통령이 거론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비보(?)에 수많은 작가와 출판사들이 비명(?)을 질렀다는데 도대체 ‘상’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생각 좀 해본다.

어떤 ‘선물’이나 ‘상’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비보(?)에 수많은 작가와 출판사들이 비명(?)을 질렀다는데 도대체 ‘상’이란 게 뭐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더 즐겁고 흐뭇하며 행복하지 않던가. 그래서 선물이고 상이고 언제나 남에게 준 다기보다 자신에게 주는 게 되지 않던가.

애인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면 손자손녀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면 다 늘 느끼는 일이라. 굳은 일은 차라리 내가 겪고 좋은 일만 내가 누리기를 빌면서 아무리 주고 또 줘도 부족해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던가.

그건 그렇다 하고 우리가 그 어느 누구의 ‘추천’이나 ‘상’을 받아 남의 ‘인정’과 ‘평가’

해 아무도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그 누가 감히 너무도 주체님께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으랴.

자신을 포함한 우주만물을 제대로 순간순간 사랑하고 섬기지도 못하면서 ‘허깨비’ 같은 독선 독단적인 존재를 모시고 경배한다는 게 말이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어서 온갖 ‘허깨비’ 굴타랑 ‘졸업하고’ 홍익인간의 인내전 ‘인생’ 학업에 열중할 일이어라.

화도 계속된다. 최근에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유전병과 DNA 서열(Sequence)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등 슈퍼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Big Data 기법을 활용해 유익한 패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때로는 폭포 같이,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물흐르 듯이 인생을 살아왔다. 각자(各自) 닮은듯 다르고, 다른듯 닮은 게적(軌跡)들을 만들면서 이제 바다로 향하고 있다. 흑, 운(運)이 좋다면 수천만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산속 어느 시냇물에서 다시 만나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소중(所重)하다. 모든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누리고 사랑하고 나눌 때라는 생각이 든다,

따뜻한 봄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던 미술관으로의 가족여행은 예술의 즐거움과 함께 내 인생을 반수(反芻)해 보는 좋은 기회(機會)였던 거 같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계속해서 변하게 마련이고, 돌연변이와 변형(變形), 그리고 판이 통채로 바뀌는 패러다임(Paradigm)의 변



김영애

구두담이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다. 남자들만 구두를 닦고 있기 때문이다. 결심을 하고 높은 의자에 오른다. 구두 모양의 금속판 위에 발을 나란히 올려놓고 앞으로 내민다. 기다렸다는 듯 구두담이 노인이 검은 구두 위에 흰 구두약을 넓게 펼쳐 바른다. 구두에 붙은 세상 먼지를 모두 닦아내려는 것이다. 구두약이 몇 겹씩 덧발라지자 노인이 양손으로 맞잡은 천을 가볍게 좌우로 문지른다. 구두 얼굴에 광택이 나기 시작한다. 그것의 이마가 맑아지자, 움츠러진 세상이 쭈그러 앉는다. 온 세상을 거느릴 구두이기에 세상이 그 위에 내려앉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검정색과 하얀색 구두약은 무광택과 광택으로 번갈아 가며, 광을 살리는가 하면 죽이고 다시 죽였다가는 살려낸다. 밤과 낮같은 삶의 어둠움과 밝음을 오가며 변화하는 구두. 삶을 뚜벅뚜벅 걸어야 할 구두이기에 그곳에는 세상의 다양한 표정들이 순간이나마 그려졌다 사라지는 것일 터이다.

구두를 닦는 일은 그 표면을 빈 공간처럼 비운 뒤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일 게다. 하루의 삶도, 평생의 인생도 세속적인 것을 쓸어내고 실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 반짝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끈기 있고 성실한 소의 가족이 만든 구두에는 꾸준함과 부지런함이 담겨 있을 성싶다. 그런가 하면 활기찬 초록 염록소를 취하는 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이를 되새김질한다. 생각해 보면 소의 분신인 가족 구두도 활기 찬 걸음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의 성찰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듯도 싶다.

노인은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어서인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것 같다. 짧은 하루지만 두 생업을 뛰어야만 유지되는 삶이다. 아침나절은 공항에서 구두를 닦고 오후에는 근처 매점에서 음료를 판 매한다. 심한 당뇨로 몸이 불편한 그는 일 주일에 세 번씩이나 신장투석을 견뎌내야만 한다. 낡은 대로 낡은 구두 같은 그의 삶을, 어쩌면 그는 성심을 다해 닦아내고 매만지며 광택을 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부츠는 어쩌면 출고 질척한 비바람 같은 삶을 막아주는 갑옷일 듯도 싶다. 삶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부츠가 온 세상을 가족으로 덮는 대신 조그만 발 하나를 감싸고 있다. 작은 발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 부츠는 그렇게 탄탄하고도 긴 기둥을 세웠던가. 세상에 내딛을 작은 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온 세상

을 단속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작은 소중함을 지킬 줄 알아야 넓은 세상도 평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람 잦은 인생길이지만 삶의 부츠를 신고 걸으면, 어떤 흔들림에도 소신껏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모난 성격의 나처럼, 부츠의 앞부분은 사각형이다. 둥글어서 모나지 않아야 숨겨진 삶의 돌부리에 상처가 나지 않을 것 아닌가. 구두는 하늘을 보고 있지만 땅을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한다. 무겁게 누르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현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부츠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말발굽 같은 뒤축으로 당당하게 달려야 하고, 때로는 낮같이 생긴 그것으로 먹이를 잘라내야 한다. 풀이나 곡식을 자르는 낮은 먹거리를 갈무리하는 또 하나의 삶의 필수 도구가 아니던가. 탄탄한 것도 모자라 날카롭기 까지 해야 하는 내 가족장화는 삶의 도구이자 버팀목인지도 모른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인지 위와 아래를 잇는 부츠의 목 부분에 심한 주름이 잡혔다. 힘든 고비마다 부러지지 않으려 굽혀야만 했던 주름들은 삶이 만든 것들이리라. 어쩌면 그것은 세월이 만든 이력서일지도 모른다. 싫어도 싫어 할 수 없고 두려워도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야 했던 인생이 만든 아픈 훈장 같은 것이다.

세월 속에 몸이 삭아갔는지 균형이 불안해진 부츠는, 급하게 내딛으면 삐걱거리다 못해 헐떡대기 시작한다. 그것은 영혼에 맞춰진 구두가 아니라, 쫓기는 현실에 맞춰진 뻘뻘한 구두이기 때문일 것이다. 달콤한 비상을 꿈꾸는 가슴과 각박한 현실이 만들어 낸 균형이 어긋난 구두는 희한한 몸짓으로 넘어질 듯 세상을 달리는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은 발에 맞춘 구두를 신고 걷는 것이 아니라, 숙명처럼 정해진 구두에 발을 맞추고 걷는 것일 듯도 싶다. 각자의 업이 만든 구두를 신고 때로는 비틀거리다 넘어지기도 하며 삶이라는 녹록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일 것이다.

검은 빛이기에 무표정한 듯한 구두. 하지만 영혼에 먼지가 조금만 끼어도, 작은 상흔만 생겨도 그것은 감출 수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다. 어쩌면 낡은 구두에는 삶에 찌든 나의 얼굴이 숨어 있는 지도 모른다.

주글거리는 구두만큼이나 힘든 구두담이 노인이 나의 구두를 닦아주고 있다. 굴곡진 삶의 주름으로 가득 찬 노인의 손이, 지



박윤수 (문리 48)

호수

눈을 뜨니 고요히 잠긴 호수는 큰 향아리에 담긴 물결이 잔잔하게 잠자고 있는데

오늘도 IS의 공포와 테러의 위협이 요동치고 있네. 밝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졌을까?

꿈속에 보이던 비명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아침 모든 비명과 공포가 호수와 같이 향아리 속에 담겨 있으면

어떤 장미

박윤수



앞마당의 장미

가슴이 울렁거려

사랑하고 싶은 충동

나는 몸을 떨었지.

가슴 조리며 기다렸던 사랑

사랑을 기다리던 그 때

그대의 발자국소리

멀리서 들려 올 때는

가슴이 울렁거렸지.

장미도

당신과 함께

즐기지 않는다면

장미의 향기도 모습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랑은 서로 주고

받아야지.

서로의 사랑을

장미와 같이 만나

주고받는

치고 힘든 나의 영혼을 정성스레 보듬어 주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초라하지만 동정 어린 그의 혼이 스트레스로 굳어진 나의 삶을 따뜻이 품어 주는 듯도 싶다.

삶은 흠집 많은 서로의 구두를 포근히 보듬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멍들고 패인 서로의 주름을 쓰다듬고 퍼주며 각각의 영혼이 가장 밝은 빛으로 반짝이게 하는 것이 인생인 듯싶기도 하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지치고 힘없는 서로의 구두를 감싸 주고 의지하며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삶 아닐까. 어쩌면 낡고 구겨진 영혼의 구두를 정성껏 서로 챙겨주는 ‘구두담이’야말로 진정한

동문 문단

한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현, 미국 LA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 회장
미주 중앙일보 “이 아침에” 칼럼 집필
이화여대 동창회보 편집장 역임
저서: <한 생각 물결되어 출렁일 때> <사각지대의 영무새> <렌트 인생>

수상
경희 해외 동포 문학상
한국 수필 해외문학상미주 펜 문학상
국제 펜 한국 본부 해외 작가상

의대 65학번 김성환 동문의 부인



곽승용 (의대 65)

여생을 행복하게

우리가 70내지 80여년을 살아오면서 가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은 한 두 번쯤 해봤고 또 이 문제는 이제까지 살아 온 삶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의 “목적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이란 저서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것에 두고, 영원한 삶을 살며 현실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활력 있게 산다’고 했으며, 정신과 의사인 스타 펍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led)”에서 “사랑은 자아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저주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철학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는 98세의 나이에 “백년을 살아보니”란 수필집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 가는 것이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대답은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며 뒤늦게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유명한 해학과 풍류시인 김삿갓, 김병언은 홍경래 난 때 조부 선천부사 김익순이 홍경래에 항복한 죄로 집안이 멸족당하고, 김삿갓은 노비 김성수의 도움으로 성장해서 과거에 응시해 조부를 조롱하는 시제로 장원 급제했으나, 어머니로부터 집안얘기를 듣고 수치심과 스스로 자책하여 세상을 등지고 삿갓쓰고 세상을 유랑하며, 당시의 조선후기 부패한 유교사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허구와 메마른 세태를 조롱했습니다.

인도의 간디, 민권운동의 마틴 루터 킹목사, 안중근의사, 조만식선생 같은 위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높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0여년 정신과의사로 살아오면서 바쁜 가운데 한인회장, 선출직 교육위원, 한글학교교장, 동창회장 등 사회봉사(?)도 했는데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한인들의 어려움, 한인사회의 문제에 나름대로 적은 도움이 되고자 동분서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퇴생활에 저의 삶이 별 것 아니고 사소한 일로 분주하고 시련, 정력, 근력, 정력(?) 능력도 떨어지니 인생이 무의미해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98세의 김형석 교수가 은퇴사에서 다시 교수를 한다면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 큰 교육을 할 것 같다고 아쉬워 했듯이, 저도 일생 의사 일을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환자를 더 사랑하고 배운게 아닌 깨달은 의술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더 만족스런 치료를 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랜 정신과 진료의 경험에서 결론은 “사람이 ‘올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

도 행복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게 태어나, 지적 박약아, 자폐아, 정신분열 등등 너무도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축복 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호킹박사, 헬렌 켈러등은 올바른 정신력으로 육체의 불편함을 극복했고 오히려 그들을 더 훌륭하게 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감정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늙는 것이 육체의 노쇠함이지 정신까지 노쇠할 게 아닙니다. 즐거운 일은 아니나 불행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 가을의 형형색색의 단풍이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개속인 비이삭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난 7월 말 Poland Spring에 Golden Club이 주관한 골프 여행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 진행을 맡으신 홍 부회장님 조 총무님 그리고 참여회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식탁머리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조용한 철학적인 조총무님과 대화 중 삶에 bucket list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의 여운이 이 글을 쓰게 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왕초보인 저도 완벽한 티샷을 꿈꾸면서 마음 속의 웅어리도 날려버리는 욕심을 가져봤으나 실재론 깐 driver를 들고 코앞에 떨어지는 짜리릭을 했을때 healing은 커녕 자괴심만 드는게 아닐까, 저녁 식사 후 나이롱봉을 하면서 1, 2볼을 안타까워하며 원초적인 약점을 노출하지만 않았는지 등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 처음에 Golden Club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노쇠하는 마음과 육체의 healing이 필요해 시작하지 않았을까? Golden Club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목적이 회원들에게 활력을 주고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에 healing의 통로가 되어 치유가 될 것입니다. Golden Club 회원 여러분!! 제가 명색이 회원이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하다보니 참석을 잘 못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만남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 마지막 공동의 광장이란 의미 등등, Golden Club의 회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98세의 김형석 교수가 은퇴사에서 다시 교수를 한다면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 큰 교육을 할 것 같다고 아쉬워 했듯이, 저도 일생 의사 일을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환자를 더 사랑하고 배운게 아닌 깨달은 의술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더 만족스런 치료를 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Postmodernism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다르고 다양함이 아름답다는 시대입니다. 행복한 삶이 우리의 건강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하면 면역력이 증대하여 무병하고 암도 이길 수 있고, 반면에 갈등하고,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 얼굴에 표가나고 면역력이 떨어져 병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귀



오봉완 (법대 55)

가족 상봉

갑자기, 나는 엄마한테 갈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줄이 그어졌다. 아빠와 나는 북쪽에... 엄마는 남쪽에...

여섯살인 나는 밤낮으로 울었다. 아빠가 달래고 맥이고 길러 주셨다

엄마는 안 오셨다. 아니, 못 오셨다

아빠는 엄마를 부르며 돌아가셨다. 나는, 아빠의 사진을 늘 지니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상봉 등록하라는 통지가 왔다. 겁이 났지만, 엄마 보고 싶은 열정으로 모험을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다듬으며 금강산 관광지로 갔다

남에서 88명, 북에서 83명의 노인이 모인다면 어떻게 엄마를 알아보지?

멋지고 고운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더니 우리 눈이 마주친다. 틀림없다. 엄마다!

엄마-아-아—어린이처럼 소리치며 달려간다. 엄마 아들 상철이예요, 상철이...

상철아, 상철아, 내 아들 상철아... 엄마는 나를 안아 주신다. 나도 엄마를 꼭 안는다 – 숨이 막힐정도로

아빠의 사진을 보여 드린다. 엄마의 눈물이 폭우처럼 흘러 엄마의 저고리를 적신다.

엄마는 92세, 나는 71. 엄마는 나보다 더 젊어 보이신다.

우리는 65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쳐다만 본다

상봉 기간 이틀이 지나,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엄마는 나와 같이 살 수 없고, 난 엄마와 같이 갈 수 없다

엄마, 오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다시 뵈 수 있을까요?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같이 살아요.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 산문시는 뉴욕 타임스 최상훈 기자의 2018년 8월 21일 기사에 의존했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Dr. Bonnie Oh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Ret.)
Georgetown University

시카고 문인회 이사장

하게 여기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즐겁고 신나게 인생을 함께 살아봅시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합시다! Golden Club회원 여러분! 행복하시길, 건강하시며 가내 평안하소서. ◆

외국어 실력



송상용 (화학 55)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베이징 칭화대 학생들과 중국어로 대화했다는 소식이 화제에 오르더니 함부르크 정상회담에 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회담할 때 독일어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경남고 다닐 때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택했기 때문이라. 625 때 한국에 파견된 의료지원단을 찾아 방명록에 독일어로 쓴 “여러분이 배운 도움은 잊지 않고 있다”(Ihre Hilfe bleibt unvergessen)는 말은 인상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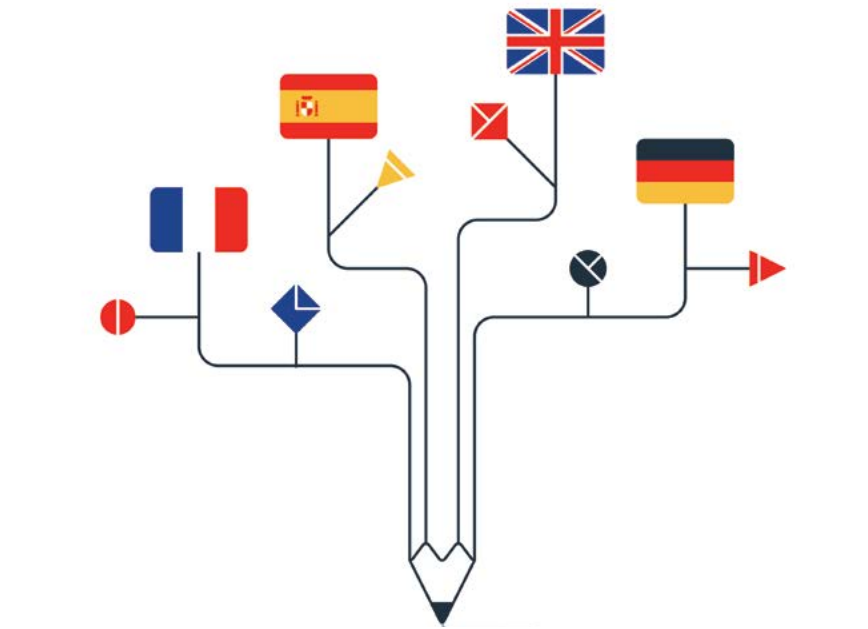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이 터져 중·고등학교의 반 영어를 시골에서 농사짓고 나무하며 보냈다. 1년 배우다 만 영어를 보충하려고 학원에 다녔다. 대전에서 미국 공보원 영어학원(박태화 원장, 장기선 대전공고 강사)에서 영어 회화와 독본을 들었다. 환도 후 서울에서는 서울고등학교(강태평)과 EU(서울고 안현필 교사)를 다녔다. 서울 대전종합고등학교에서 시작한 독어(허 혁 이대 교수)는 아카데미(강세형 국회의원, 김정진 모교 사대 교수)에서 회화와 독본을 택했다.



한정민 (농대 87)

심리상담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직업이지만,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다나 지인의 넋두리를 듣는 것과는 분명 차별성을 둔다. 훈련된 상담사는 영화 같고 소설 같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마냥 빠져 듣는게 아니라, 내담자의 이야기 저변에 깔린 감정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바라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감정은 “왜 그렇게 느끼냐, 이렇게 느껴라”라고 머리나 이성으로 명령할 수 없는 이미 내면에 배달된 메시지다. 그것을 계속 외면하거나 억압하면 엉뚱한 곳에서 화나 분노가 폭발되기에, 감정을 세분화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과 마음돌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상담 중 심리적 통로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드러내는 두가지 큰 감정이 죄책감과 수치심이다. 동물에게는 없고 문화를 지닌 인간만이 느끼는 두 감정은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작동방식이 다르다. 수치심은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죄책감은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때 스스로 자기자신을 비난하는 감정이다. 오늘은 죄책감을 다루고 내달에 수치심을 비교 분석하려 한다.



50년대 후반에 대학을 나왔다. 그때 논리와 대학은 일본의 고등학교 비슷한 자유 분방한 학풍이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영어 이외에 외국어 두 과목을 듣는 것

은 보통이었다. 화학을 전공한 내가 독문과 여덟 강좌(허형근)를 신청해 32 학점을 뒀고 영문과 열 강좌(교양 영어 포함, 권중휘, 박충집, 정인섭, 전제욱, 여석기, 송 욱, 이종구, 황찬호)와 불문과 한 강좌(김봉구)를 청강했다. 그때는 부전공 제도가 없었으나 생물학까지 합쳐 세 과목을 부전공한 셈이다. 초급 불어는 CEF(이휘영, 방 곤)에서 배웠고 70년대 교양과정부에서 강의하면서 김광남(김현)의 ‘프랑스 문명’ 강독을 청강했다. 러시아 말은 80년대 고려대 여문학교에서 집중 러시아어(김진원, 석영중)를 딸과 함께 청강

했으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내 친구 임석훈은 화학과 시 낭독 모임에서

했으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내 친구 임석훈은 화학과 시 낭독 모임에서

부른다. 죄책감은 바로 이 양심이 규칙을 어긴 자신을 비난하는 내면의 소리다.

죄책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실제로 사회의 규칙을 깨뜨렸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짜 죄책감이 있다. 이러한 죄책감은 바람직한 적은 행동을 피하고 타인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생산적인 면도 있기에 모든 죄책감이 나쁘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많은 내담자들과 지인

베를렌느(Verlaine)의 시 ‘감상적 대화’(Colloque sentimental)를 읽었고 러시아말을 배우러 다녔지만 유학은 독일로 갔다. ‘맨발의 철학자’ 채현국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강독에서 서문 한 자락을 새겼고 야유회에서는 이브 몽탕이 히트한 ‘고엽을 프랑스말로 멋지게 불렀다. 그는 삼국지도 나관중의 원서로 읽었다. 내 제자 홍광엽(한림대 명예교수)은 경북고 학생 때 뉴욕 헤럴드 트리뷴 세계청년포럼에 참석했고 사병으로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할 때 전두환 대통령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파리대에서 정치학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유학중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망명 때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쳤다.

나는 학생 때 독어 논문 두 편(화학, 철학)을 번역해 ‘문리대학보’에 실었고 니체의 시를 번역해 ‘새 세대에 발표했다. 독어, 프랑스어 책을 읽어 논문도 여러 편 썼다. 한국사를 전공한 아내(김선곤사학 57-61)는 한문, 일본말, 중국말을 새로 배워 쓴 졸업논문이 ‘역사학보’에 실렸다. 일본말을 제대로 못 읽는 나를 많이 도와 주고 여행 때는 통역도 해준다. 요즘 스위스에 사는 딸은 왜 그렇게 독일말을 못하느냐고 괴대 학원에 등록하라고 한다. 그러나 50 넘어 러시아말을 배우려다 실패한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 아내는 이탈리아에 사는 외손주와 한글과 이탈리아 말을 카톡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다. 재미로 하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영어 회화는 잘 하나 제 2외국어는 거의 안 해 책도 못 읽으니 딱하다.

화학55-59, 철학60-62
한림대 명예교수

지 못했거나 스스로 만든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기는 자기 비난의 소리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거나 충분히 돌보지 못한 미안함, 또는 사고나 전쟁에서 동료의 죽음 속에서 자신은 살아난 것에 대한 생존자의 죄책감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죄책감을 어떻게 제거할까? 먼저 모든 죄책감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인식하고 스스로 만든 가짜 죄책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혹시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죄책감이라면 사과나 용서를 구하거나 처벌을 받음으로써 죄책감을 줄일 수 있다. 얌전한 부모 밑에서 성장해서 높은 도덕적 양심기준을 가졌거나, 종교적인 율법에 강한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완벽주의자인 경우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린다. 본인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면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죄책감이 생산적인 변화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죄책감이 계속될 경우 자존감이 저하되고 무기력함과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으로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다. 죄책감이 심한 경우 스스로 만든 왜곡된 생각과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인지치러나 상담을 통해 수정, 교정하는 작업이 죄책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죄책감은 마음속 안에 있는 하나의 생각과 감정일뿐,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님들... 기억하도록 하자.

심리상담사

해 왔다. 이런 사회적인 규약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스스로를 제약하는 굴레로 작용하였고, 이를 보통 ‘양심’이라

들은 실제로 잘못된 행동이 없는 데도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가짜 죄책감은 학습된 반응으로 외부의 기대를 채우



강신용 (사대 73)

Mentoring Network Program

SNUAA in USA & SNU Students in Korea

[본 내용은 지난 27차 평의원 회의 시 남가주 동창회 강신용 회장께서 기타 안전 시간에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시간 관계상 진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호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목적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와 모교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 간에 공동의 관심 분야에 기존 서울대학교 내리사랑 멘토링 시스템에 먼저 미주 서울대 동문, 동문 자녀, 그리고 동포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고국의 인재들과 네트워크하여 글로벌 시대의 서울대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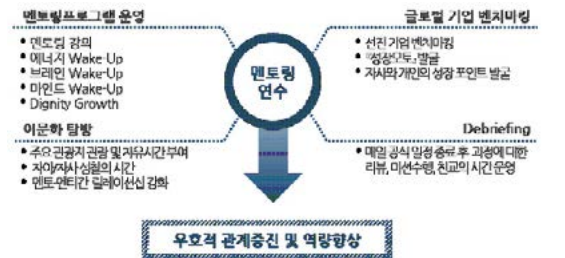
■ 목표

졸업 후 각 분야로 해외로 진출한 서울대 동문 그리고 그들의 각계각층에 진출한 선배들을 멘토로 연결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소개를 듣고 선배와의 오프라인 대화 시간을 가짐으로써 멘티의 관심 분야 전공 학부생, 대학원, 박사과정 등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와 취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시로 멘토링 해외 네트워크를 목표로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 유학생이거나 이민 와서 진로와 취업문제를 겪는 동문도 이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수적인 목표이다.

■ 멘토링 프로그램

A. 미주 서울대 동문회 멘토의 특성

-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소통 기회 마련
-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 글로벌 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목적 의식 부여
- 새로운 환경에서 미션 수행을 통한 자신감 부여
- 다문화 환경에서의 조직 문화 습득
- 한단계 더 성장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B. 참여 가능 멘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할 만한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와같은 멘토를 활용하여 모교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할 수 있는 멘티와 NETWORK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 CEO, 석학,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사회 각분야의 리더들을 멘토로 모시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대학생 멘티들과 공유하며,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한 미래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의료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전문가, 재미동포들의 사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는 직장, 이사급의 공무원, 대학교수 등

C. 서울대학교 멘토링 네트워크 참가자 혜택

- 서울대학교와 미주 동문회의 MOU
- 학교에서 멘토 인증서 발급
- 온라인 게시판 및 정보 제공
- 해외 탐방, 문화 이벤트
- 멘토링 이벤트 성공 사례 발표회

D. 언론 보도와 홍보

- 서울대학교 게시판



SCHOOL-LIFE MENTORING PROGRAM: SMP LINK해서 정보교환



'선순환 내리사랑'을 실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 정보교환

-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회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보: 전미주에 매월 발간
- www.snuaa.org: Website 활용
- NEWS@SNUAA.ORG
- acropolistimes.com | Facebook: 미주Internet 신문
- 미주 주요 일간지, 방송사, TV 방송국 편집국장 및 수많은 임원들의 홍보 및 인터뷰

E 활동 및 모니터링

- 이 프로그램은 ON LINE Program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OFF LINE도 가능합니다.
- 활동 기간, 대상, 신청은 항상 MENTORING POOL을 통해 열린 마당의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별 강연, 인제 추천, 미국 방문 및 인턴십 기회를 포함합니다
- 외국인 인턴 채용 선호 기업의 증가 및 해외 인턴십 희망 한국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증가
-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멘토: 재미 동문, 동문의 자녀, 재미 유학생 외 동포사회의 지원자
- 멘티: 모교의 학부, 대학원생, 동문 졸업생, 유학생 그리고 이민은 동문

F. 활동 방법

- 개별 활동(멘토-멘티)과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다.
- 개별 활동의 경우 활동 일지를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 활동을 통해 개별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
- 모교 및 미주 동문지에 멘토링 프로그램 결과를 보도한다

■ 사업 기간 및 사업 내용

A. 사업 기간은 계속 지속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B. 사업 내용

- 개별 멘토링 활동
- 메신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활동을 포함하여 멘토-멘티의 개별 멘토링 활동
- 단체 멘토링 활동
- 필요시 세부 활동계획서 보고

■ 멘토지원서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 MENTORING POOL에 등록, 동문회 게시판, 동문회 제출 2
- 멘토링 프로그램 세부 활동계획

기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8	멘티 모집 및 선정	- 학교 재학생, 대상자 추천 - 멘티 개별 상담후 선정 - 멘티 또는 부모동의서 작성
	멘토 모집 및 선정	- 관련학과 모집 홍보, 의뢰 및 자발적 신청 - mentoring pool, mentee 요청 후 선정
2018. 9.	오리엔테이션(OT)	- 2017학년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회 - 정보 공유 및 주의사항, 지침 알림 교육 실시 - 멘토링 참가자의 혜택과 해외 진출 홍보
2018. 9.	단체 활동	- 단체 미국 방문 진행(협약 및 Intern 체험 등) - 동호인 방문을 통한 나눔, 배움, 친목 도모
	개별 활동	- 멘토, 멘티 개별 활동
2019. 9.	연간 보고	- 멘티-멘토 종결 보고 진행 - 전체 프로그램 평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멘티 보고서

※ 상기 내용은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평가 방법

평가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4
평가도구	멘토링 계획표	멘토 일지	운영 일지	협의를록
평가방법	멘토링 계획표 작성	개별 모임 멘토 일지 활동 내역 확인	멘토-멘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점검	연간 보고서 협의 내용 작성 확인

• 멘토링 계획표

멘토링 계획표 세우기

멘토명		활동방법
멘티명		면담, 방문, 전화(문자), 메신저, 기타()
목 표		멘토링 목표 항목
목표 구체화하기	세부목표	세부목표 세부목표

• 멘토 활동 일지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일지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일지				
일시	년 월 일	멘토 성명		
활동 방법		멘티 성명		
장 소		소요 시간	시 분 ~ 시 분	
멘티의 행동 관찰				
멘티의 현재 상태 (가족, 학교, 특이 사항)				
활동 내용				
멘토, 멘티 관계의 정도	1 2 3 4 5	멘토, 부모 관계의 정도	1 2 3 4 5	
멘티의 변화				
활동 평가 및 향후 계획				
해결할 문제 및 supervision 필요 내용				
필요한 지원				

멘티-멘토의 만남 이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멘티의 행동관찰, 활동내용을 적음으로써 사례 회의때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정보공유와 원만한 관계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이며, 매 회기 작성을 멘토&멘티의 관계 향상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

남가주 동창회 회장, 강신용
Address: 3850 Wilshire Blvd., Ste 201
Los Angeles, CA 90010
Phone: (213) 380-1600

Travelling into Tanzania

8 June to 21 July, 2018

김수지 (인문 00)

[김수지 동문은 지난 27차 평의원 회의 시 장학금 수혜 동문이며, 여름 방학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현재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중이다. (편집자 주)]

My interest in Africa stemmed during study of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during my undergraduate years – from need to understand how different African communities' power structures evolve with shifts in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I wanted to interact in an environment which had direct exchanges with rural communities, and was fortunate to be able to work in UNICEF Namibia and later Good Neighbors Tanzania (GNTZ) for a few years.

My work during these years focussed on empowerment dynamics, human rights based approaches and participatory development models in African communities. I had been trained in project Monitoring and Evaluation (M&E) methods, but wanted to further research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shaping the norms and practices of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Tanzania's history of Ujamaa and 'African socialism' implemented



with other neighboring areas. Thus, I also spent the next few weeks visiting other Good Neighbors Tanzania (GNTZ) project sites in Bagamoyo and Zanzibar, and also the Mbolle Millennium Villages Project (MVP) area near Tabora. I travelled by bus and boat to meet stakehol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orking in the project sites – to learn about different regions' varying dynamics, and discern which site would be best appropriate for my future studies.

It was invigorating and exciting to be back in Tanzania, talking with villagers and learning about their customs and ideas for the future. I also managed to squeeze in several M&E trainings for GNTZ staff members in Dodoma and Dar es Salaam during this visit. I plan to return each summer to carry out volunteer work with GNTZ and attend Swahili language classes – to better my understanding of Tanzanian lifestyles, and to gain wisdom on how to approach this study of Tanzanian politics.



정도현 (공대 57)

Brief Timeline of Architecture Eras in the Western World

When the mankind found the renewable food sources through the farming, they settled instead of roaming and thus the Civilization began to emerge. Historians have categorized what is called "The Built Environment" into Architectural Eras. This brief Timeline traces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n the Western world, beginning with the first known structures made by Pre-Historic people up to the soaring skyscrapers and swirling design of the Modern Era.

1. Prehistoric Architecture (Before 3000 BC) --- Before recorded history, human constructed monumental structures, Earth Mound, Monolith or Megalith such as Stonehenge. Architecture is found in these Structures built by men in to a Geometric Forms.

2. Ancient Egypt (3000~1000 BC) --- Powerful Rulers mobilized skilled workers to construct Pyramids, Temples, and Shrines. These were a marble of Engineering that could reach incredible heights, however the enclosed spaces were rather limited. Stone Columns were placed close together to support a heavy but brittle Stone Slab above.

3. Classical (Greece and Ancient Rome 900 BC~AD 500) This is the Golden Era of enlightened Architecture, from Ancient Greece to the fall of Roman Empire. Greek Idealism brought Balance, Perfect Proportion and Harmony to the construction of Great buildings including the Parthenon with decorative Column Orders (Doric, Ionic & Corinthian). Romans borrowed heavily from Greek & Hellenistic style, but they also applied the most significant 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Arches, Vaults & Domes with the invention of Concrete to create a large enclosed space for civic uses (Pantheon).

4. Romanesque (800~1200 AD) --- After adopting Christianity, Roman Empire spread across Europe. Churches and Castles of the early Medieval periods were constructed in a form of a heavy, stocky buildings with Rounded Arches, thick walls & massive Piers. It was the start of Middle ages which lasted a long time.

5. Gothic (1100~1450 AD) --- During the height of Christian influences, a new and refined style of building with soaring height began to emerge. Gothic Architecture accentuating Vertical

Elements such as Pointed Arches, Flying Buttress (a counter balancing structural elements at the flanks of building against arches' Thrust), & Ribbed Vaulting seems like praying to Heaven (God). Many of the world's most sacred places are from this period that includes Paris' Notre Dame & Chartres Cathedral.

6. Renaissance (1400~1600 AD) --- "Age of Awakening" particularly in Italy was a movement returning to the Classical Ideals of the Ancient Greece & Rome. After a long period of religious dominance, Artists & Architects resort to the Humanism of the secular world and emphasized Horizontal Elements of the Buildings.

It became possible with the advent of Tensile materials such as Iron with its Tensile Ring or Rod eliminated heavy Buttress. St. Peter at Rome or Cathedral at Florence are example.

7. Baroque / Rococo (1600~1800 AD) --- Early 1600 an elaborate & lavish style of buildings with a highly opulent & extravagant ornamentation for the privileged class began to emerge. Rococo was the last phase of Baroque period with more eloquent decorative design & more graceful touch.

8. Beaux Art / Art Deco (1900~1935 AD) --- Beaux Art architecture is characterized combinations of classical Greek & Roman architecture with Renaissance ideals. Art Deco architecture embraced both the Machine age and Ancient time. Art Deco buildings have many of these features: Cubic forms, Ziggurat or groupings of rectangles or Trapezoids. The Chrysler Building of NYC is a good example.

9. Modern Architecture (1930~) ---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advent of new materials such as Steel & Glass and advancement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y provided the Modern Architecture with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Against a long domination of classical architecture, a group of young talented architects in the Central Europe embarked on new architectural movement in 1930s - this was the birth of the celebrated "Bauehouse Movement" with the slogan of "Less Is More". Since then this simple repeatable, light but strong, structures have dominated urban area throughout the world.



전무식 (수의 61)

불로장생(不老長生)이

가능한가?

건강과 장수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다. 현재 우리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첨단의학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장수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현대인을 백세시대인(HomoHundred, Centenarian)이라고도 부른다. 인간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1) 보통 초경 연령의 약 10배= (12-13세)x10배=약 120세
- 2) 신체 성숙 연령의 약 5배=24세x5배=약 120세
- 3) 인체 세포의 평균 수명은 25년이고 세포는 약 50회 분열 후 사멸하니 25년 x 50회=120세.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 조건에서는 대략 120세까지를 우리의 기대 수명으로 상정할 수있다. 참고로 각 인체 세포의 평균 수명은 위장의 점막세포: 2-3일, 피부세포: 3주, 적혈구: 4개월, 백혈구: 3-20일, 뼈와 근육 세포: 약 10-15년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춘 비결

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단위에서 일어나는 퇴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보통 성장 과정이 끝난 후인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게 마련이다.

우리 몸에서는 세포의 노화와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파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활성산소(Free Radical)이다. 활성산소가 몸 안에 이곳저곳을 파괴해서 조직이 약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흔히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염증이 수많은 만성 질환과 심지어는 암의 원인까지도 될 수 있다.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 손상을 빨리 회복(복구하기 때문에 파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디게 회복됨으로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고 몸의 항산화 능력은 점차로 떨어져 빠르게 노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을 막아야 한다.

그 밖에도 노화의 원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과식, 흡연, 음주, 공해, 자외선, 가공식품, 탄음식, 튀긴 음식, 달거나 짭개 짙인 음식, 동물성 지방, 탄산 음료 등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영양 불균형이나 운동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10여년이 더 젊어 보일 수도, 더 늙어 보일 수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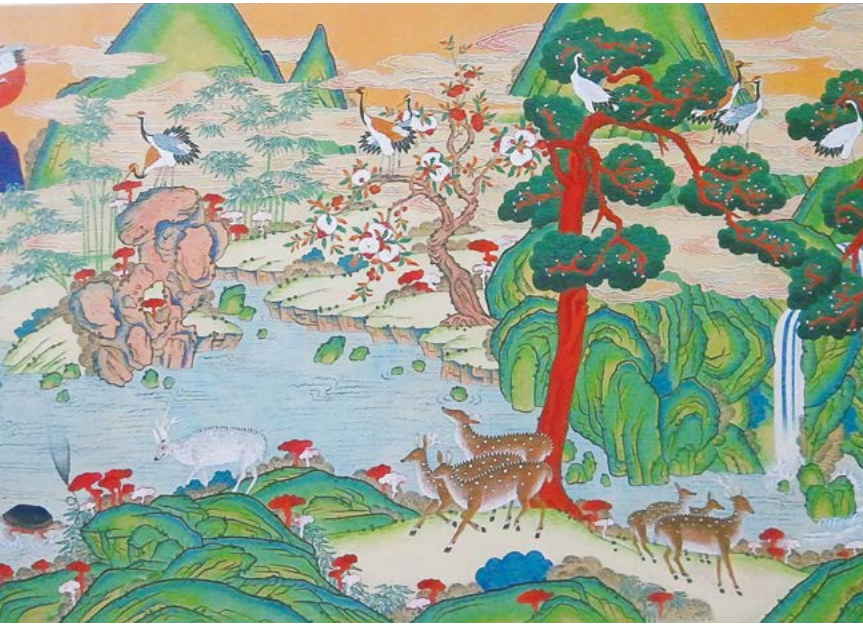
1. 편안한 마음가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심성이 따뜻하고 너그러워서 분노나, 원

망, 시기,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면 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잠시 아래 성경(잠언) 구절을 음미해 보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 (잠 15:13)

“자기 몸의 질병을 치료하려거든 먼저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라(欲治己疾先治己心) - 허준



민화, 십장생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됨으로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이 결국 노화를 늦추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물론 사람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보자. 마음이 맞는 친구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친구는 당신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일을 할 때 좋은 친구가 그냥 한방에 있гийн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내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좋은 친구나 친지가 많은 사람이 외로운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25%정도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학교 동창회나 교회 모임, 기타 친교 모임 등에 가능하면 열심히 참석할 것을 권장한다.

2. 웃음이 노화를 지연시킨다 (一笑一少, 一怒一老)

- 웃으면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통증을 사라지며 기분도 좋아진다.

-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얼굴, 목 등 상체 근육에 긴장이 풀린다.
- 破顏大笑(파안대소)를 하면 그 자체가 훌륭한 근육 운동이 된다. (우리 몸의 약 650개 근육 중 230개 근육이 큰소리로 웃을 때 함께 움직인다.)

- 웃으면 일시적으로 동맥 혈관이 이완되고 호흡 수가 증가되어 혈액에 산소공급도 더 많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 안색이 좋아진다. 평소에 유머를 즐기고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하루에 몇 번씩 크게 웃어보자. 웃을 일이 없을 때라도 거울을 쳐다보며 자신의 웃는 표정이라도 지어보면 스스로 웃게 될 것이다. 잠시 일천 이백 여년 전 한 시인의 對醵(대주)라는 칠언절구의 시 한 편을 음미해 보자.

蝸牛角上爭何事(와우각상쟁하사=울챙이 뿔처럼 좁은 세상에 사는사람들이 무슨 일로 서로 다투는가?), 石火光中寄此身(석화광중기차신=부싷돌 불빛처럼 잠시 반짝하고 꺼져가는 허망한 인생이거늘), 隨富隨貧且歡樂(수부수빈차환락=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함께 즐기며 살아야지), 不開口笑是癡人(不开口笑是痴人)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랑을 빚으셨다는 성경 말씀에 수긍이 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세포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 탈수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 그 대표적인 부위가 피부이다. 탈수가 되면 피부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나이가 들어 가면서 장운동이 약해져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가 흔히 생기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 소화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리끼를 한잔을 마시면 변비 예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잠든 몸을 깨우는 효과도 있어서 아침에 흔히 마시는 커피 대신에 미지근한 물 한잔이 몸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보약이라고도 불린다. 간혹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 물 한컵을 마시면 허기가 가시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 경우는 목이 마른 것을 배가 고프는 것으로 우리 몸이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중조절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바로 음식을 먹지 말고 일단 물을 한 컵 마신 뒤 10분쯤 기다렸다가 그래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성인은 보통 하루 평균 7-8cup(약 15 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조금씩 씹어 먹듯이 마시는 것이 좋다.

* 노화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

첫째, 활성 산소가 몸속에 많이 생겨나서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서 녹슬게 하기 때문이라는 설. 활성 산소란 짝지어지지 아니한 전자(Free Radical)를 가진 유해 산소를 말한다. 그 수명은 매우 짧지만 순식간에 세포막을 파괴하고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체계를 파괴하거나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를 변화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만성질환과 암 유발 등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다. 이처럼 무서운 활성산소를 몸에서 적게 생성하려면: 1)과식, 과음, 과로하지 않는다, 2)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분노하지 않는다, 3)금연하고 인스턴트 식품(햄, 소시지, 탄산음료, 햄버거 등)과 탄 음식, 튀긴 음식 등을 피하고 자외선 방사선 베기가스 화학 물질(농약, 중금속, 의약품)을 조심한다, 4)감염병을 조속히 치료한다.

둘째, 단백질의 당화 현상 때문이라는 설: 지나친 당분 섭취(하얀 설탕, 하얀 밀가루, 백미 등)인해 혈당이 급증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피 속의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 붙어 제 기능을 못해 세포들은 점점 더 녹슬고 늙어 간다는 이론.

셋째, 1)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을 때 다량 분비되는 코티솔은 우리 몸 속에 나트륨 지수와 혈압 수치를 올린다. 2)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분비되는 다양한 인슐린이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중년이 지나면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오메가3 지방산(DHEA), 멜라토닌(melatonin) 등의 젊음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노화가 촉진된다.

1)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려면 양질의 수면(Non-Rem수면)을 유지해야 한다.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장애 등을 극복해야 한다.

2) DHEA(노화방지호르몬)가 부족하면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촉진된다. DHEA는 부신(Adrenal gland)에서도 생성되고 성호르몬(에스트로겐 및 안드로겐)으로 전환되는



이종호 (인문 81)

'에멘 난민' 시험지

받아든 한국

현대 국가는 대부분 다민족 국가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 중국, 인도 등 큰 나라들이 모두 그렇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도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나 난민을 받아들인다. 문제는 있지만 사회적 활력의 원천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일본, 이스라엘 같은 단일 민족국가 같은 예외적이다. 유달리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도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보면 민족 순혈주의가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알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민족 개념은 없었다. 신라는 당나라와 더 가까웠고 백제는 왜(倭)와 더 친밀했다. 고려 때도 다양한 이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발해 유민 포용이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등을 규합해 세운 나라다. 한 때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통일신라와 함께 10세기 중반까지 우리 역사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다. 조선 초기 편찬된 '고려사'에는 926년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한 후 열주 12만 명의 유민이 고려로 넘어왔다고 기록돼 있다. 고

스테로이드이다. 적극적인 성생활을 할 때는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등 푸른 생선이나 굴 혹은 건과류에 많이 있고 건강 식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3). 멜라토닌(Melatonin)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젊음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약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수면은 심장 박동과 호흡 수를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 등을 더 많이 분비한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속설이 있는가 보다.

넷째, 체내 독소의 축적 설. 우리가 섭취하는 각종 음식이나 그 음식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독소들을 체외로 속히 배출(대소변이나, 땀, 호흡 등으로 시키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세포의 파괴, 변이, 암 발생 등을 유발하고 세포나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결국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이론이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과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필자는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건강상 많은 유익을 경험한 바 있다. "Back to Eden Healing Center와, 천연 치유 연구원". *디톡스(Detoxification)란 단순히 몸 속의 축적된 독소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소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도 함께 각 장기로부터 체외로 배출시킴으로 그 장기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영양소와 산소

려 전기 인구 200만 명의 6%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다. 발해 주민은 지배층 10~20%만 고구려 계통이고 나머지 80%는 말갈족이었다. 말갈족은 훗날 여진족, 만주족으로 불

“유달리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도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보면 민족 순혈주의가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알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민족 개념은 없었다.”

리게 되는 북방민족이다. 이들이 대거 고려인이 되었다는 말이다.

고려가 몽골의 간섭을 받은 기간은 100년 가까이 된다. 그 동안에도 이리 저리 피가 섞였다. 조선시대에도 난리 통에 귀순해 온 여진족이나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더 하다.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2017년 현재 한국에 동지를 둔 외국인인 200만 명

이 넘는다. 전체 남한 인구의 4%다. 그들은 결혼이나 취업 등 여러 경로로 한국 사람이 되었거나 되고 있다. 그 자녀들은 한국군에까지 입대한다. 언제까지 한국이 단일 민족만 세울까 처지는 아니라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크게 융성했던 나라들은 거의가 이민족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다는 점이다. 로마, 페르시아, 몽골 제국이 다 그랬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도 다른 어떤 시대보다 개방적이

고 인종적, 종교적으로 관대했다. 반대로 아무리 강성했던 제국도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외 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다. 중동의 오스만투르크, 중국 명나라, 인도의

“유달리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도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보면 민족 순혈주의가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알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민족 개념은 없었다.”

무굴제국 등이 그 예다.

에이미 추아 예일대 법대 교수는 '제국의 미래(원제:Day of Empire)'라는 책에서 로마제국의 융성은 "여왕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피정복민을 받아 안은 데서 나왔다"고 했다. 미국도 그랬다. 서부 개척부터 산업의 급성장, 2차 세계대전 승리, 초일류국가 위

상 확립으로 이어지는 변역의 원동력은 이민자들의 우수한 노동력과 재능이었다. 하지만 911 이후 이민자 문제, 환경 문제 등에서 다른 국가와 담을 쌓고 강력한 불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도 몰락한 과거 제국들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게 추아 교수의 진단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주의' 역시 결과적으로 미국의 쇠락을 재촉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 갈등을 넘어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 사상의 공존이 21세기 시대정신이 되었다. 거기에 더 이상 자민족 중심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순혈 민족주의에의 집착이 얼마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적이 되고 있는지는 히틀러 독일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미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지의 여부는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자유, 민주, 평화, 인권, 관용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얼마나 앞장서는가가 결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은 나라 한국도 희망이 있다. 분단과 냉전의 상처로 깊이 아파 본 만큼 인류 보편가치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온 에멘인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들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한국이 들끓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어떤 답안을 써 낼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지금 남북회담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지를 받아 들었다.

제주도에 온 에멘인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들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한국이 들끓고 있다. 한국 정부가,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어떤 답안을 써 낼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지금 남북회담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지를 받아 들었다.

5. 인체에 활력을 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들: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해조류, 마늘, 양파, 고구마, 버섯 등이 노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다. 모든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을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야채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들과 식이 섬유를 섭취하려고 야채를 먹는데 채소에 열을 가해서 익히면 Ca+O2=CaO(산화칼슘=흰석회)가 되고 이것이 몸에 흡수되면 체액과 결합해서 CaO+H2O+CO2=CaCO3(Calcium Carbonate=탄산칼슘=하얀 석회석)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칼슘(Ca+O2(가열하면)=CaO(산화칼슘=흰색의 석회), 2) 마그네슘(Mg)+O2(가열하면)=MgO(산화 마그네슘=흑색의 결석). 3) 철(Fe)+O2(가열)=FeO(산화철=적색의 녹) 등으로 변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야채를 익혀 먹으면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불활화 되고 효소들이 파괴(섭취 50도 이상에서)되며 섬유질은 장벽에 붙어 숙변(宿便)으로 쌓여 각종 독소를 만들어 냈으므로 장세포에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내시경 장염과 심하면 대장암까지 생길 수 있다.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당이 지방으



한수웅 (의대 55)

홍산문화(紅山文化)와

요하문명(遼河文明)

지난 15년 동안 중국은 국사수정공정國史修正工程을 가동하여 자기조상의 역사를 바로 잡느라고 많은 석학들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뿌리찾기운동을 전개한 결과를 최근에 발표하였다. 즉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2002년 초부터 시작하고,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2003년 6월부터 발동하였고, 2007년부터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遼疆歷史興現狀系列研究工程을 단행하여 그 후속 정책으로 중화中華역사를 수정하여 황하문명보다 2000년 앞선 요하문명을 중화문명의 뿌리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시선은 대단히 날카롭다. 특히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고려의 연원성을 끊고, 또한 고구려와 한국의 연원적 관계성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으로서 남북통일 이후에 북한지역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이 한국으로 통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전술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얼마전까지 중원의 한족문화를 중심으로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 있었다는 역사관을 고창하며 한족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동서남북에 오랑캐, 야만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화이관華夷觀을 자랑하고 있던 중국이 갑자기 중원의 한족 문명 및 양자강 문명을 뒤로 제치고 그보다 2000년 이상 앞선 홍산문화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요하문명에 한족문명漢族文明을 접목시키는 일에 전국의 유명한 사학자, 고고학자들을 내용굴 영역에 있는 적봉시赤峰市에 집결시켜 기원전 몇세기에 거친 유적 및 유물을 발굴하기에 분주하였다. 이 지역이 만리장성 밖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몹시 당황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홍산문화의 탐험은 1906년 일본의 고고학자 도리이쥬조우鳥居龍樞가 적봉赤峰일대 지표조사를 하던 중 우연찮게 많은 신석기 유적과 적석묘積石墓(돌로 쌓은 묘) 등을 발견한 것을 위시하여 프랑스 예수회 신부 에밀 리쌍(Emile Licent)이 22곳의 신석기 유적을 발견하여 간단히 기록에 남겼는데 이를 본 중국 고고학도 양사영梁永恩이 미국유학에서 돌아가서1930년부터 내용굴 일대와 흑룡강 등에 본격적인 발굴사업을 시작하여 “열하고고 보고熱河考古報告”를 학계에 보고하여 이것이 오늘날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모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실제적 발굴은 1935년 일본고고학자 하마다 고사우濱田耕作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그는 만주족과 몽골족이 내용굴 동부에서 발원하여 중국의 한족과 역사적으로 독립했음을 밝히려 대규모의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때 발굴한 채도와 세석기의 특징을 가진 이 문화를 1954년 홍산후紅山後를 기념하여 홍산문화라고 명

사祭祀시설이 발견되었다. 돌로 쌓아 만든 분묘墳墓나 제단祭壇이 5 km2 나 되는 넓은 구역에 정연하게 분포되어 있다. 동시에 돌마루와 채색한 벽이 있는 신전神殿이 발견되었고, 눈을 미취로 만든 여성 두상女性頭像 도기陶器가 발견되어 “여신묘”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발굴과정에서 지하 1 m에서 제단, 벽화, 돌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이 여신묘단에서 사람 크기의 세배나 되는 도제陶製의 상像在 줄지어 있어서 이는 신상神像으로 추정되며, 현재 중국문화에서는 유례없는 사적이다.

이 여신묘에서 채도, 다량의 옥기 부장품副葬品이 출토되고 그 부근에서 60개 이상의 석총고분石塚古墳이 발굴되었고 근처의 언덕위에서 돌무덤이 발견되고, 이런 고분에 금, 용 및 거북의 조각이 발견되어 이때 이미 제물을 바쳤다는 지적이 생기고 있다. 선문대의 사학과와 이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여기에서 홍산학술문화원 박문원 원장의 또 다른 설명을 들어보자.

“요하문명은 초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인류사적으로 가장 큰 변혁기를 이루어냈던 거대한 문명이었다. 유적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본다면 B.C7000년 전 소하서문화小河西文化를 필두로 한다. 그렇다면 소하서문화 이전에는 요하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전에 특별한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요하지역에서는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들이 발견된다. 사람이 살던 정확한 시점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

요하문명의 중기문화인 홍산문화 시기는 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제정일치政教一致시대였다. 여신상 등의 유적과 유물은 당시 모계사회였음을 입증한다. 이 시기는 묘에 옥기를 부장副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옥기는 최고의 권력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도구류, 상징류, 장식류, 의식류, 제기류로도 씌었다.

홍산문화 이후에는 옥기를 부장하지 않았으며, 사용목적도 주로 부족의 상징이나 의식용품, 장식품 등의 용도로만 사용했다. 이는 문명이 청동기시대로 진입했다는 증거이다.

홍산인들의 옥기에서 인간의 예술적 본능을 엿볼 수 있다. 풍부한 감성과 창조적 능력, 예술적 욕구를 옥기로 표현했다. 옥기는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다. 옥기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하는 패용佩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석관을 쓰는 묘제는 한반도나 요동반도, 시베리아 북방벨트를 따라서 많이 분포되고 있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이런 석관묘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보다 2000년 정도 앞선 시기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 구역에서 중국의 옥기 전문가들이 옥을 자를때 쓴 도구를 발견하였는데, 옛날과 같은 조건으로 옥자르기를 추시해 보았는데 대단히 시간 걸리는 정교한 작업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홍산문화의 가장 놀라운 유물은 홍룡와문화시대興隆窪時代(BC 6200-5200)에 치아수술齒牙手術흔적이다. 치아

에 뚫린 구멍의 직경이 모두 일치하고 도구를 이용한 연마흔적도 발견되었다. 옥에 구멍 뚫는 기술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우하랑 유적의 발견이후 청동기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옥기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으며, 이것이 홍산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옥기를 만드는 장인집단이 따로 존재했고, 신분이 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소한 7등급의 신분이 있었다고 중국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신묘와 함께 저변이 20-30m의 3층 피라미드식 적석총積石塚, 심지어는 저변이 60m 되는 7층 피라미드의 적석총을 쌓는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홍산문화가 국가단계 즉 초기문명단계라고 보고 있다. 이 선사시대에 수장국인 왕국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홍산학술문화원 박문원 원장의 또 다른 설명을 들어보자.

“요하문명은 초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인류사적으로 가장 큰 변혁기를 이루어냈던 거대한 문명이었다. 유적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본다면 B.C7000년 전 소하서문화小河西文化를 필두로 한다. 그렇다면 소하서문화 이전에는 요하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전에 특별한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요하지역에서는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들이 발견된다. 사람이 살던 정확한 시점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

요하문명의 중기문화인 홍산문화 시기는 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제정일치政教一致시대였다. 여신상 등의 유적과 유물은 당시 모계사회였음을 입증한다. 이 시기는 묘에 옥기를 부장副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옥기는 최고의 권력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도구류, 상징류, 장식류, 의식류, 제기류로도 씌었다.

홍산문화 이후에는 옥기를 부장하지 않았으며, 사용목적도 주로 부족의 상징이나 의식용품, 장식품 등의 용도로만 사용했다. 이는 문명이 청동기시대로 진입했다는 증거이다.

홍산인들의 옥기에서 인간의 예술적 본능을 엿볼 수 있다. 풍부한 감성과 창조적 능력, 예술적 욕구를 옥기로 표현했다. 옥기는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다. 옥기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하는 패용佩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기유물을 통해 요하지역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문명이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로만 보아도 한민족의 역사는 절대 5천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하문명과 우리 한민족과의 밀접한 관계성 역시 앞으로 연구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제5의 문명이 이 지역에서 발상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홍산문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요하문명으로 불러주는데 이 문명을 중국 한족의 문명이라고 독점하기에는 너무나 반대하고 다양하고 요원하다. 지역상으로 이는 중국의 만리장성 밖에 위치하고 한족이 오랑캐라고 부르던 몽고족, 청족이 처음부터 살고 있던 곳이고, 고조선 및 고구려가 1400년 동안 살

호지배한 한민족韓民族的의 영토이다. 더우기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의 영토가 만주일대와 지금의 러시아 땅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또한 고려가 끊임없이 북방고토수북北方古土收復을 노렸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한민족이 사실상 이 지역을 지배했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의 일이 담겨있는 곳이다. 사실상 만주 일대의 역사가 한민족의 역사라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최근까지도 중국은 만주의 동북 3성을 한족漢族의 관심밖에 두었으며 청제국 및 청측을 이단事異端視하고 갈세하였다.

이런지역에 황하문명보다 2000년이나 앞선 문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즉 인류4대문명 외에 5대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그것도 한반도 전역이 그 영향권에 있었다는 사실이 들어나면서 일본까지 한 뭉 끼우려는 움직임은 과히 예상한 일이다.

이런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중국은 중국영토에 사는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이고 그 지역의 역사도 중국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족과 55개 약속민족을 하나의 단일한 중국민족으로 둔갑하려는 소위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을 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민족 자치구에 한족漢族을 이주시켜 한족의 세력을 부식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가를 더 발전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면 소수민족들이 제각기 분할 독립을 위하여 지금의 러시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존 홍룡와 문화 옥결과 똑같은 모양의 옥결이 발굴되었는데 기원전 6천년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홍룡와문화와 같은 모양의 옥귀결이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이 옥귀결이도 기원전 6000년 이상을 호가하는 유물이라고 한다.

한반도에는 홍룡와 형성기와 비슷한 시기에 옥결이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옥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직선거리로 400 km 떨어진 요령성의 수암에서 생산된 옥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홍룡와일대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토기도 문암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기원전 6천년에 홍룡와문화단계에서는 한반도 북부지역과 요서, 요동지역이 하나의 단일 문화권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요하문명에 속하는 신락문화新樂文化는 모계씨족의 정주취락定住聚落의 신석기시대에 속하면서 기원전 8000-7000년으로 소급된다. 신락문화는 요령성의 선양瀋陽시 북부에서 옥유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하문명이 지금부터 1만년 상고대로 소급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만 없었더라면 이 요하지역은 우리 영토로 남아 있을 뻔 했다. 애당초 라당연합羅唐聯습만 없었더라면 우리민족이 요하 문명의 발상지를 오느날까지 실호 통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고조선을 한반도 북부를 포함한 만주땅을 호령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내용굴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민족이 만주일대를 장악한 역사는 거의 기원전 3000년 가까이로 까지 소급된다. 고구려와 발해까지 포함하면 우리 한민족이 거



조동준 (의대 57)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돌아갈 수 없는 50년 전을 돌아본다. 나는 그때 20대였었지. 아 그리운 시절이여! 너무나 멀리 떠나와 버렸군.

아득한 그때가 그리워진다. 지금의 이런 시간이 올 줄 그리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다. 볼티모어 어느 거리에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었지. 조금은 부른 꿈을 가지고서 말일세. 그런데 세월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서, 50년을 그냥 살아왔더니 믿어지지 않는다.

지나온 50년을 뒤돌아보면 변개같이 지나가 버린 세월, 이 나라에서의 세월을 후회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살지 못한 그동안의 세월이 아쉽고, 도둑맞은 것 같다.

이제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처지에서 지나온 세월만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런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런 남은 시간은 꼭꼭 씹어가면서 살아야겠다. 실은 그동안 이 나라 50개 주에서 동서남북을 헤쳐 다니며 살아온 셈이다. 동서를 잇는 대륙 간 자동차 여행도 하면서 말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 해군에 들어가서 군의관으로 3년 복무하고 바로 한국을 떠나 1967년에 미국에 왔다. 가난한 한국 정부에서 허락하는 100달러를 손에 들고서, 비행기 표는 취직한 병원에서 선불해 주던 혜택을 받으면서 말이다.

생각하면 그 당시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었다. 그때 우리는 가능하면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대세였었다. 의대 동기 동창 130명 중 84명이 미국으로 입국했으니 말이다.

독일의 광부, 간호사와 같은 처지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모자라는 의사 보충을 위하여 이 나라의 정책으로 수입된 셈이다. 물론 이곳의 의사 자격시험을 치고 들어왔다. 그 당시 한국 이외에도 인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같은 현상이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조문문화條文文化가 기원전 1만 3천년에서 기원전 3백년까지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다가, 기원전 3세기에 한반도에서 쌀농사가 전래되어 야요이 시대가 개막되어 급속시기가 출현하였다. 일본인의 조상은 한반도를 거쳐간 몽골계 인종, 시베리아를 통해 건너갔다고 추리되는 아이누족 및 남태평양 열도에서 온 민족들이 되는 셈이다. 지정학적 여건으로 보아, 요하문명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요하문명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 가운데 한족의 중원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빗살무늬토기, 피라미드식 적석총, 빗파형동검, 치를 갖춘 석성 등이다. 요하문명은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4대 문화인 빗살무늬토기문화, 거석

문화, 채도문화, 세석기문화를 모두 수용하고 거기에 옥문화까지 융합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이를 주도한 세력들이 당시 일었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 4대 문화권이 중첩되고 융합된 곳은 지구촌에서 이 지역이 유일하다.

그러나 하면 함께 살아온 많은 친구와 정을 끊고 온 셈이니, 돌이켜 보면 그 또한 엄청난 것을 잃고 살아온 셈이다. 이제는 한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영원히 바뀌었다.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나의 후손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동안 언어의 장벽, 이곳 문화와의 갈등 없이 내 고향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왔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지만, 아쉬워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문화, 채도문화, 세석기문화를 모두 수용하고 거기에 옥문화까지 융합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이를 주도한 세력들이 당시 일었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 4대 문화권이 중첩되고 융합된 곳은 지구촌에서 이 지역이 유일하다.

자랑스러운 우리 겨레의 슬기가 어데서 진원하였는지 능히 추리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오천년보다 훨씬 유구하다는 사실을 타득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아 이른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동 아세아의 모든 민족이 요하문명의 분신이며 그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어느 민족이 그 주류이며 또 누가 그 야류에 속하는지가 가려지는 갈라에 이른 것이다.

지난 4년간 동문님들과 함께 만든 서울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에 기부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REATIVE SNU人

내일의 서울대학교를 위한 모금캠페인

(2014. 7. ~ 2018. 7.)

모금액
6,098 억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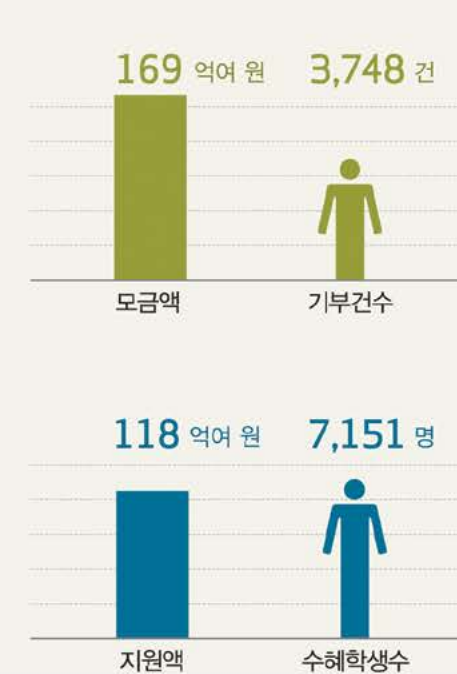
발전기금 참여건수
64,720 건



■ 본교 관계에 따른 참여



■ 선한 인재 장학금 (만만한 기부 포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서울대학교의 공식 모금기관입니다.
조성된 기부금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주재단을 통해 기부하시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 212-768-9144 Fax : 212-768-4494 E-mail : kenneth@klcpagroup.com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435-1974 E-mail : america@snu.ac.kr

참여 협력 영광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 978-835-0100 | F 978-353-1882

www.snuua.org
email: general@snuua.org

제16대 (임기 2021. 7 ~ 2023. 6)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6대 동창회장 (임기 2021. 7 ~ 2023. 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손재욱 (제13대 회장)

연락처: 손재욱 전회장 (267-736-2992) | 윤상래 회장 (978-835-0100) | 신용남 차기회장 (646-523-9606)

제16대 회장 (임기 2021. 7 ~ 2023. 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a. 2018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2019년 6월 혹은 7월: 전국평의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 차차기회장 확정
-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8. 7 ~ 2019. 6) ☐ \$150 (2017. 7 ~ 2019.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8. 7 ~ 2019. 6) ☐ \$480 (2017. 7 ~ 2019.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P.O. Box 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부>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문의: D.C. 상풍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희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훈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하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훈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영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석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북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
SINCE 2000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홈커밍데이 참가 안내

Let's go HOMECOMING DAY together	■ 10월 16일 (화) -18일 (목): 제주도 관광	■ 10월 21일 (일): 홈커밍데이 행사
제14대 미주 동창회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모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다음과 같은 제39차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일 (화) __ 김포공항 개별 출발, 오전 9시~10시 사이 출발 제주공항 도착 시, "US 아주투어" 가이드와 만나야 함. 협재 해수욕장, 금능 식물원, 테마 파크	9 am __ 접수: 모교 보조운동장 9 am ~ 12:30 pm __ 환영 행사 (편약산 등반) 12:30 ~ 15:30 pm __ 축하 행사 (본 행사) 17 pm ~ __ 행복기부 콘서트 (대운동장)
	17일 (수) __ 추상철리, 마라도, 용머리 해안, 수목원 테마 파크, 특산품점	모든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미주 동문님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신 시간에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10월 15일 (월): 모교 개교 기념식	18일 (목) __ 성읍 민속마을, 해녀촌 탐승수속 후 출발 (PM 1:30 이후 비행기 탑승)	홈커밍데이 참가 관련 문의: 백옥자 (Jace Lee), 조직국장 T: 213-388-4000, C: 818-395-1967
자율적 참여	문의: 백옥자 (Jace Lee) T: 213-388-4000, C: 818-395-1967 한국 문의 : 고봉관 차장 Tel: 02-522-8686	





건강한 당신의 가족 곁에 항상 **한남체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표
하기환 (공대 66)

가장 신선하고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들이지 않고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한남체인**은 매일매일 달리겠습니다



www.hannamchain.com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Fullerton
풀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S-Mart
에스 마트
(424) 731-7447
2515 Torrance Blvd.
Torrance, CA 90503